

On the Report Tendency of Mass Communication in Nuclear Accident and the Standpoint of Public Acceptance from a Intrinsic Point of View.

〈A Case Study of Quantitative Analysis in Connection
with the Newspaper Report Especially in Korea.〉

Soo-Yong Lee

Department of Physics, College of Science, Hanyang University

핵사고시 매스컴의 보도경향과 본질적면에서 본 국민이해의 관점

〈특히 한국신문 보도에 관련된 정량적인 분석의 사례를 중심으로〉

李 秀 容

한양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

Abstract -- Following after the Chernobyl accident, the response to the large scale nuclear accidents became a clear example to show how these accidents affect the public information that strongly depend on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factors. Furthermore, in present day although we live in the era of various information, as far as the problem of nuclear is concerned, the acceptance of the source of information is always apt to limited. Therefore, in this investigations, as a case study, an attempt is to make the method of minimizing and a preparation to cope with the grope of countermeasure for psychologically unsettled and disordered problems that accepted from both of the unconfirmed and of the exaggerated circumstantial report of mass media as well as a clue to the probability under the condition of existence of major and minor nuclear accidents. In the present paper, it also intends to establish the terminology that covered all the part of nuclear field use in a writing guideline to the scientific column of nuclear accident as shown in the table. and several methodology in relation to the report tendency of mass communication in nuclear accident and the standpoint of public acceptance from a intrinsic point of view are discussed.

Key words : Chernobly accident, Public acceptance, mass communication, nuclear accident

요인에 밀접하게 관련된 대중정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의 극명한 사례가 되었다. 오늘날 다양한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도 “핵”에 관한 정보원의 수용은 항상 제한받는 경향에 있다. 그러므로 본조사에서는 보도원으로부터 수용된 미확인보도 내지는 과장된 핵사고 상황보도 등의 문제로 파급될 수 있는 심리적인 동요와 혼란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모색하여 개연성(probability)이 상존하는 크고 작은 핵사고의 경우에 대비코자 하는 한 사례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핵사고시 제시된 방사선 제반분야에 대한 총망라된 보도영역에서 과학기사 보도 작성지침으로서의 관련 학술용어의 가능한 사용한도를 표로써 설정하였고, 아울러 본질적인 면에서 본 국민이해와 방사선 재해방지 홍보대책과 더불어 몇가지 방법론을 거론하였다.

중심단어 : 체르노빌 사고, 국민이해, 매스 커뮤니케이션, 핵사고

I. 체르노빌 원전사고 보도경향

1. 서 론

전세계인을 핵공포로부터 전율케 했던 원자력 발전사상 최악의 사고로 알려진 구소련의 『체르노빌』원전 4호기 폭발사고는 세계적으로 방사능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킨 사건이었다. 이 사고의 영향은 미국의 TMI원전사고(1979. 3. 28)와 지금도 기억에 새로운 기능이 마비된 소련의 첩보위성(코스모스 1402호)의 원자료가 대기권으로 추락했던 사건(1983. 2) 등과 더불어 세계인이 함께 불안해 했던 상황을 다시금 환기시킨 사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적어도 핵에 관한 국경없는 방사선사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재고케 하는 계기가 확장된 사건이었다. 특히 이를 기하여 국내 외적인 여론의 골격은 핵사고등의 보도는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져야 하고, 또한 국민은 이와 같은 보도에 신속히 접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집중되었었고, 이것은 특정한 국가에만 해당되는 사항만이 아니라 전인류가 핵의 위협으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권리주장이 대두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깊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의 제기였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상 최악의 참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99.9%의 안전성을 자랑하던 원전시설이 0.1%의 인체와 위험성 때문에 화를 부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핵 원자력발전소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된 과거 체르노빌의 원전사고는 현재 11기의 원전을 가동시키고 있는 우리에게도

강건너 불 구경하듯 남의 일만이 아닌 문제로 대두되었었다. 따라서 체르노빌의 사고에서와 같이 『국경없는 방사선』 사고에 대해 1986년 당시 서울의 6개 일간지의 관심도와 사설 등에서 또한 얼마만큼 심층적으로 이 사고를 다루었는가는 이와 유사한 핵사고의 경우에 발생될 보도경향을 추론케 한다.

분석방법으로 핵사고의 경우 단일 사건으로 세계여론의 최장기 대상이 되었던 전기한 『체르노빌』 원전사건을 표본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은 1986년도 당시의 서울의 6개 종합지 전면으로 하여 조간은 서울에 배달되는 신문, 석간은 1판으로 한정하여 동사고의 첫 외신보도(1986년 4월 29일)가 있는 후부터 당시 당서기장이었던 미카일 고로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TV회견을 통해 조기 경보체제 구축을 제안(1986년 5월 14일)한 다음날인 신문발행일수 17일(동년 5월 15일)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였다.

보도내용의 심층도와 관심도를 보도의 성격상 외신과 내신(사설·칼럼·해설 등도 논평항으로 포함)으로 구별하여 분석비교하여 핵사고의 경협이 없는 상황하에서 긴급핵사고시 과학보도의 문제점을 살폈다. 행수의 경우 편의상 13배 1단을 기준으로 통일했으며 사진은 양의 기준을 1단 cm로 하였다. 내신기사는 당국의 조치, 국내반응, 국내상황을 비롯 칼럼, 사설 등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2. 분석의 내용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주요보도

일지는 다음과 같으며 날짜별 보도량 비교(행수) 사고를 통해 원전사고시 미확인보도의 딜레머를
는 표 1, 날짜별 게재건수는 표 2로 나타냈다. 이 엿볼 수 있다.

(1) 사고에 따른 주요보도 일지

일 자	주 요 보 도	비 고
1986. 4.29	소 원자로 대규모 파손사고 방사능 대량누출	(한) '2천 사망' 6개지 전부
1986. 4. 30	소 원전사고로 2천명 사망(UPI), (경향),(서울), (중앙), (동아) 3천명 사망 소 원전사고 방사능 한국 아직 영향없어	(조) 세계 원전사고일지 ○과기처 "방사능낙진 한국에 올 가능성 적다" (5개지 전부)(조선)은 5/1日
1986. 5. 1	소 원전 1기 또 폭발, 2기 더 폭발할 듯 보이는 것은 죽음 뿐(조선), 키에프 대 혼란(서울) ○사진: 프랑스 앙텐 2TV에 방영된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진: "파손된 부분" △봄비 속 「낙진과민」	(한) '3천명 이상 사망' (경)인공위성 촬영 (동)사망자 4천명 님을 듯 미 소대사에 정보공개 요청 ○재해와 예방대책
1986. 5. 2	소 사고원전 진화주장 원전참사, 소 정치체제 변혁 가능성	○과기처 "빛속 낙진측정 안됐 다."
1986. 5. 3	소 사고원자로 동형 20기 모두 폐쇄	(핵 전문가 레베슨 박사) (조) 한국원전 염려없다. (정부) '소 원전사고 영향없다' 밝혀
1986. 5. 4	소 사고원자로 부근, 30 km 「접근금지 선포」 고르바초프 대외 이미지 먹칠	○모스크바 당서기 엘트신 밝 혀
1986. 5. 5	동경 7개국 정상회담 개막, 소 원전사고 주 의제, 소 원전사고로 주민 5만대피	○엘트신 당제1서기 밝혀
1986. 5. 6	소방사능낙진 첫 검출, 충북지방 빗물에 서울, 충남, 강원 빗물서도 미량의 방사능검출 유럽인 8천명 발암 가능성 (중앙)	석간 일제히 1면 또는 11면 조간은 5월 7일자에
1986. 5. 7	○소 원전낙진 충주서 검출 <5일>내린비에 방사능 ○원자로 아직 불타 (동아, 중앙)	조간보도 우리 원전 안전하다.
1986. 5. 8	○미,소 우발적인 핵전통제 위기감축 「센터」설치	△서울, 홍천등 4공 방사능검출
1986. 5. 9	○키에프 시민 '대탈출' 소동 ○소 원전 15일째 불길 <방사능 계속 뿜어, 진화충격> 원자로 계속불타 ○소, EC에 곡물(식량) 판매요청	연론도 사태심각 인식 사실보도 (때늦은) 서방기자 첫 취재 키에프 근방서 차이나신드롬
1986. 5. 10	○소 사고원전 완전진화, 콘크리트로 밀봉 ○방사능 지하침투 우려	석간, 조간 (11일)
1986. 5. 11	○핵안전 국제회의 추진 ○소 원전투출 방사능서 I-131검출	방사능 탄소 옥소-131 검출돼 (타스 첫시인)

일 자	주 요 보 도	비 고
1986. 5. 12	○서구 각국 「반핵시위 재연」(석간)	석간 조건(5.13) (12일은) ○IPI, 소 원전사고 은폐비난 규 탄 결의안
1986. 5. 13	○서구 각국 「반핵시위 재연」(석간)	
1986. 5. 14	○소 핵사고 조기경보기구 신설제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2) 신문별 계량 (행수)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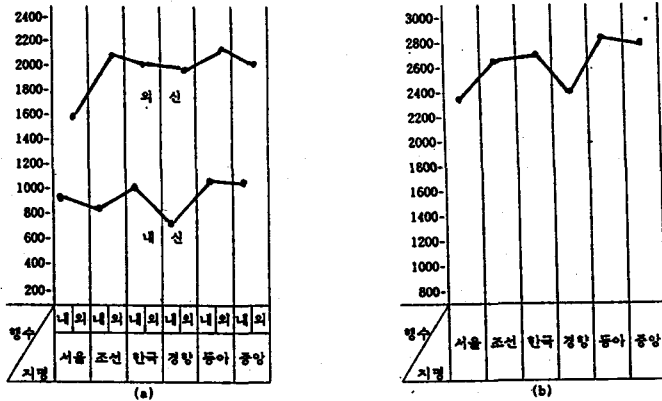


그림 1. 6개지의 보도량 비교 그래프 (행수)(a) 및 총 행수(b)

첫 외신보도가 나간 4월 29일부터 고르바초프가 TV회견을 한 다음날인 5월 15일까지 17일간 보도량은 그림 1과 같이 6개지 평균 2천행을 넘고 있으며 이는 매일 평균 165행씩 기사를 게재한 양으로 신문별로 볼 때 한면의 1/3의 분량을 게재한 폭이 된다.

- ◆ 보도 3일째 기사량 가장 많아 기사를 가장 많이 게재한 날짜는 보도 3일째인 5월 1일로 6개지 총 3,098행에 이르고 있다. 이날은 6개 신문 모두 한면 (약 400행) 이상의 지면을 할애한 분량이다. 이같은 급격한 증가는 4월 30일 (2,210행) 「2천명이상 사망」이란 외신에 이어 「원전 1기 이상이라도 폭발」했다는 외신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 ◆ 동아, 지면 제일 많이 할애 신문별로 보면 동아일보가 지면을 제일 많이 할애, 총 2,761행이나 되는데, 이는 1일 평균 184행을 게재한 양으로 다른 5개신문보다 이사고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다뤘

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중앙일보로, 동아보다 143행 적은 2,618행이다. 제일 적은 신문은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으로 각각 2,155행, 2,208행을 게재했으며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각각 2,552행, 2,596행씩이다.

(3) 신문별 빈도 (건수) (그림 2)

17일간 6개지의 게재건수는 총 336건으로 신문당 평균 56건씩을 보도했다. 이는 1일 평균 3.7건씩을 게재한 폭이된다.

- ◆ 서울, 동아 60건씩 제일 많아 가장 빈도가 높은 날은 계량에서와 같이 5월 1일로 모두 56건 (신문별 평균 9.8건씩)을 게재했으며 신문별로 보면 6개신문이 모두 그림 2에서와 같이 엇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건수를 게재한 신문은 서울과 동아로 각각 60건씩이다.
- ◆ 중앙, 한국 빈도 제일 낮아 빈도가 제일 낮은 신문은 중앙일보와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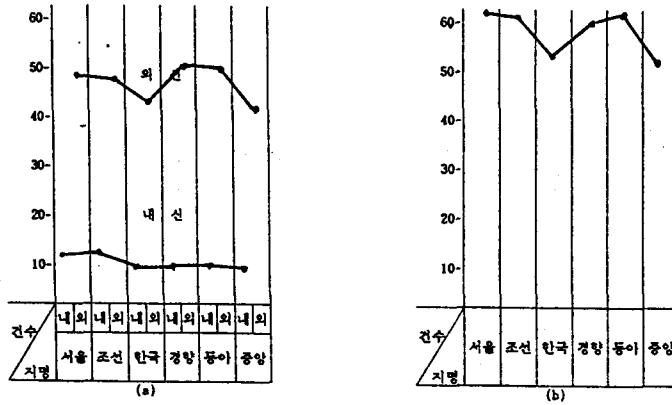


그림 2. 6개의 보도건수 비교(a) 및 총계(b)

표 1. 날짜별 보도량 비교 (행수) 1986년 4월 29일~5월 15일 (17일간)

지명	일자	1986년 4월 29일~5월 15일 (17일간)														계	총계
		4월 29일	30일	5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서울	내		5	150	56		238		9					191		649	2,155
	외	24	214	252	296	71	129	39	96		103	140	69	35	14	24	
조선	내		31	244		185		34	14	25						533	2,552
	외	32	254	496	299	186	45	239	66	29	76	58	139	26	23	51	
한국	내			35	32	365			119	113	27					691	2,596
	외	24	189	389	311	250	165	7	36	32	137	173	65	28	99	1,905	
경향	내		12	22	50			58	186	18						346	2,208
	외	64	385	248	266	141	56	57	100		111	96	237	17	19	65	
동아	내		221	355			28				115					719	2,761
	외	172	258	294	536	55	12	20	57	23	158	50	100		28	79	
중앙	내		124	242			220	98	33							717	2,618
	외	48	517	371	217	170	25	54	102		151	54	144		48	1,901	

일보로 각각 48건, 51건씩이고 조선과 경향은 중위권으로 각각 59, 58건씩 게재했다.

- ◆ 4월 29일, 5월 13일이 빈도 제일 낮아 17일중 가장 빈도가 낮은 날은 사고보도 첫날인 4월 29일과 원전 화재진화후 서구 각국의 반핵테도가 많이 있었던 5월 13일로 이 2일은 신문당 평균 1건씩만 게재했다.
- ◆ 빈도에선 큰 차이 없어 빈도 (건수)에서 6개 신문 모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내신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사가 외신보도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제약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4) 신문별 내신의 계량, 빈도 (건수)

내신은 17일간 6개신문 총 3,655행으로 신문별 평균 609행이 게재되었으며 이는 1일 평균 40행씩의 양으로 내신의 경우 사실, 칼럼도 포함시켜 계산하였다.

- ◆ 5월 1일이 타일의 2배 게재 가장 많은 양이 게재된 날은 총계량과 같이 5월 1일로 1,048행 (6개지 종합)이 게재되었으며 이는 평균치에 비해 무려 2배나 되는 보도량이다. 특히 동아와 조선은 총 내신량의 1/2을 이 날짜에 할애하고 있다.
- ◆ 동아, 중앙이 제일 많아

표 2. 6개지의 날짜별 게재건수 비교 (1986년 4월 29일~5월 15일 (17일간))

지명	일자	4월 29일	30일	5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소계	총계
서울	내신	1	5	1			2(1)*			1						1(1)*			11	13
	논설	1					1												2	62
	외신	1	3	7	9(1)x	5	2		4	4		3	3	3		2	1	2	49	
조선	내신		1	1(1)*	1	1				1	1	1							7	18
	논설		1	3(1)°	4(2)°	2									1				11	59
	외신	1	4	6(1)x	5	5	3		4	1	1	2	2	3		1	2	3	41	
한국	내신			1	2	1				2	1(1)*	1							8	13
	논설			1	1	2(1)°	1												5	52
	외신	1	4	4	3	3	3		1	2	3	3	4	3		2	3		39	
경향	내신		1	1					2	2	1								8	11
	논설		2		1														3	62
	외신	1	6(1)x	5	6	6		3	5	3	1	4	2		4	2	1	2	51	
동아	내신		2(1)*	1					1				1(1)*						5	9
	논설			2	2(1)°														4	59
	외신	3	8	9	4(1)x	3		2	2	2	1	3	3		4		3	3	50	
중앙	내신		1(1)*	1					2	1									5	10
	논설		2						2(1)°	1									5	49
	외신	1	5	8	3(1)x	6		1	3	1		4	1		4			2	39	
계	내신																			
	및 논설		12	16	12	6	4		7	8	3	2	2	1		1			74	
	외신	8	30	39	30	28	8	6	19	13	6	19	15	9	12	7	10	10	269	
소계	8	42	55	42	34	18	26	21				17	22	8	10	10		343		

신문별로 보면 동아와 중앙이 제일 많은 양을 게재하고 있는데 각각 719행, 717행씩이다. 이것은 동아와 중앙이 국내상황에 가장 민감하여 다른 신문보다 내용을 더 상세하게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경향이 제일 적은 양 게재
반면 경향은 346행으로 다른 신문의 절반 정도의 양을 게재였는데 그의 신문의 경우, 한국은 691행, 서울은 649행, 조선은 533행씩을 게재했다. 빈도(건수)는 6개지가 대동소이한 데 서울, 조선이 11건씩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4개신문은 모두 9건씩 똑 같다. 17일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날은 5월 1일로 20건이 게재됐으며 다음이 4월 30일로

7건이 게재됐다.

(5) 첫 보도후 1주간의 신문별 강도 (그림 3~10)

◆ 조간 조선, 석간 동아가 상세하게

▲ 4월 29일 (첫 사고보도): 26일 새벽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4호기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사고는 3일이 지난 29일 조간부터 외신을 타고 보도되기 시작했다. 서울신문등 3개 조간은 4면(외신면)에 3, 4단 크기로 「소련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자체만을 24행 정도로 간략하게 취급했다. 그러나 석간부터는 3개 신문이 모두 외신면 톱으로 비중있게 다루기 시작했다. 특히 동아일보의 외신면 톱을 비롯 관련기사를 3건씩이나

게재, 6개지중 가장 비중있고 상세하게 (176행) 보도했으며 이날 조간은 「소 원전서 방사능누출」이란 간단한 제목이었지만 석간은 「사고」와 「대량누출」이란 강한 제목을 사용했으며 3개지 모두 컷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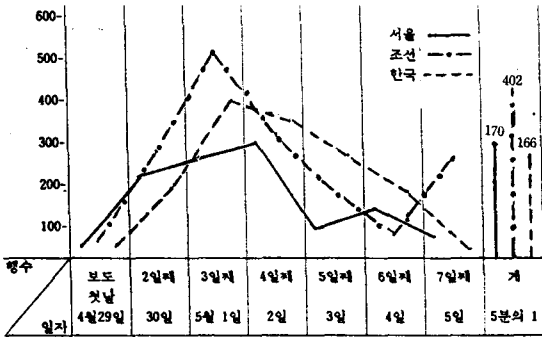


그림 3. 6개지의 날짜(7일간)별 외신보도량 비교 (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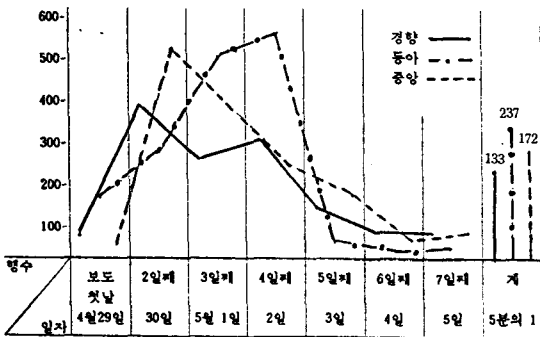


그림 4. 6개지의 날짜별(7일간) 외신보도량 비교 (석간)

◆ 조간, 조선이 계량면에서 으뜸

▲ 4월 30일 (2일째) : 사고보도 2일째인 30일 「사상 최악의 사고」라는 측면에서 3개 조간은 모두 1면 4단크기에 「2천여명 사망」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외신면도 3개지 모두 톱으로 다뤘으며 빈도 (건수)면에서도 3개지가 똑같이 5건씩 게재했다. 그러나 내용 (상세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 조선이 285행으로 가장 많은 양을 게재했으며 다음이 서울 219행, 한국 189행 순이다. 또한

조선은 「국내엔 아직 영향없다」는 2단 제목의 내신 기사를 최초로 신고있다. 서울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1단으로 게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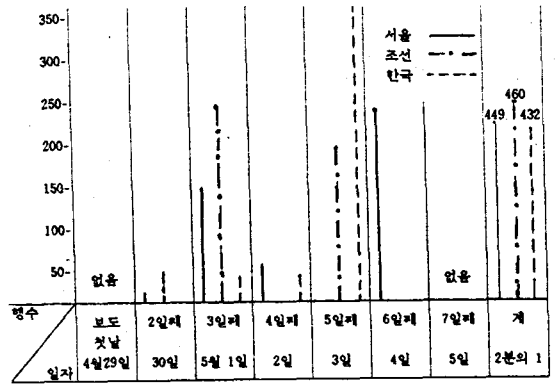


그림 5. 6개지의 날짜별(7일간) 내신보도량 비교 (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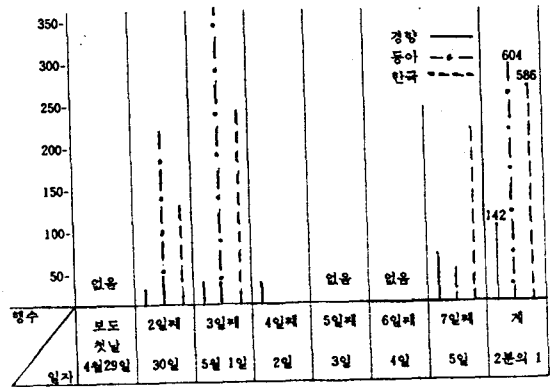


그림 6. 6개지의 날짜별(7일간) 내신보도량 비교(석간)

◆ 중앙 1면중 톱으로 가장 비중있게

석간의 경우 3개지중 중앙이 1면에 6단중 톱으로 가장 비중있게 다뤘으며 내용면에서도 641행으로 가장 상세하게 보도했으며 다음은 동아로 외신면 톱과 사회면 4단등 479행을 실었다. 경향도 외신면 톱으로 다뤘지만 보도량은 397행으로 3개중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앙 (6건)이다. 따라서 동아, 중앙이 6개지중 가장 다양하게 사고보도를 취급했다고 할 수 있는데 서울, 경향등 나머지 4개신문은 똑같이 5건씩 보도했으며 내신은 경향, 동아가 각각 2건씩 게재했으며 그외 4개지는 1건씩 보도했다.

◆ 동아, 중앙 최초 사설로 다뤄

특히 동아와 중앙등은 최초로 사설에서 다뤘다.
(동아, 「소 핵발전 참사」, 중앙, 「강건너 불인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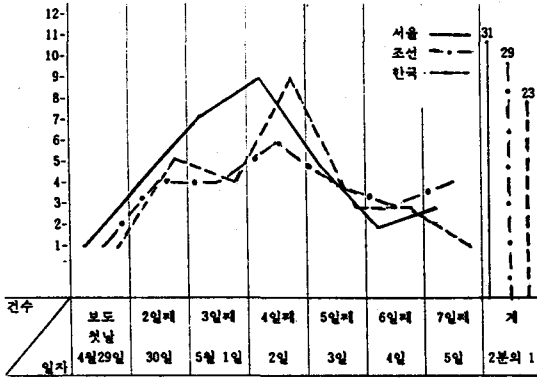


그림 7. 6개지의 날짜별(7일간) 외신계재 건수 (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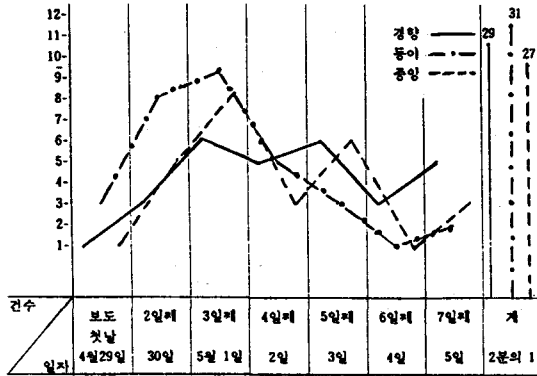


그림 8. 6개지의 날짜별(7일간) 외신계재 건수 (석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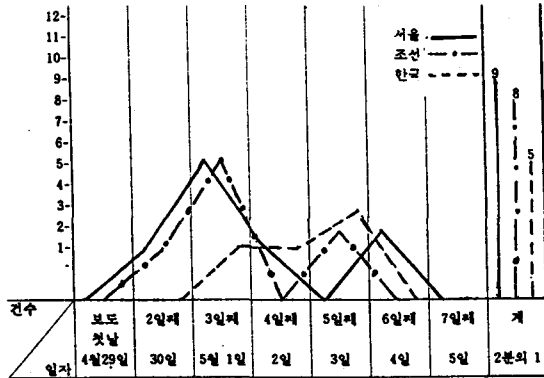


그림 9. 6개지의 날짜별(7일간) 내신계재 건수 (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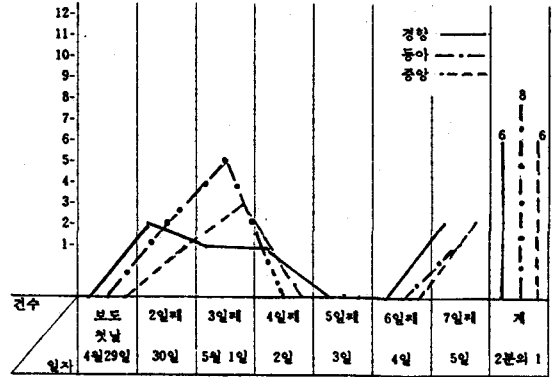


그림 10. 6개지의 날짜별(7일간)

내신계재 건수 (석간)

◆ 동아, 강도, 빈도, 계량 모두 으뜸

▲ 5월 1일 (3일째): 「체르노빌 원전 1기 또 폭발」이란 외신보도는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해, 강도, 빈도, 계량면에서 15일 중 가장 비중있게 다뤘다. 조간의 경우 조선은 1면 중첩과 사회면 톱으로 내외신 모두 가장 강도있게 취급했으며 사설에서도 「강건너 불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방사능오염의 우려를 나타냈으며 건수면에서는 서울이 12건으로 기사를 가장 다양하게 다뤘고, 또한 3개지 모두 외신면 톱으로 보도했다.

◆ 경향이 비중 제일 약해

석간은 동아가 사회면 톱을 비롯 모두 14건에 649행으로 강도, 빈도(건수), 계량면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뤘다. 반면 경향은 외신면과 5면에서만 취급했으며 계량 (270)행과 건수 (7건)도 가장 적다. 결국 6개지중 동아, 중앙, 조선 순으로 강도가 높다.

◆ 만화, 한평에서도 다뤄

만화는 한국(계재하지 않음)과 중앙을 제외한 4개지 모두, 한평은 조선, 동아, 중앙등 정기계재 3개지 모두 취급했다. 특히 이날은 사고이후 첫 비가 온 후로 만화의 주 소재가 모두 우산인 것이 특징이다.

◆ 서울은 빈도, 동아는 계량서 높아

▲ 5월 2일 (4일째): 조, 석간 6개지 모두 외신면 톱으로 강도높게 다뤘지만 1일 보다는 다소 건수나 계량적인 면에서 떨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3일간의 급격한 상황에 비해

체르노빌 사고원전의 진화로 방사능 누출 현상이 끝났다는 외신보도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칼럼, 해설 등 특집의 내리다지 기사는 1일과 비슷하게 취급하고 있다.

◆ 조선, 1면에 사진을 보도

신문별로 보면 빈도(건수)면에선 서울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보도량에선 동아가 536행으로 가장 상세하게 취급했으며 특기할 만한 것은 조선이 타 신문과는 달리 「체르노빌 부근의 위성사진」을 1면에 4단 13센티의 크기로 게재한 점이다.

◆ 중앙, 3건으로 비중 낮아

내신은 서울이 사회면에 「지난비에 방사능 없다」는 제목의 중첩으로 사진과 함께 가장 강도있게 다루었으며 한국이 「비오자 방사능신경」이란 4단 제목으로 사회면을 할애하고 있을 뿐이다. 빈도와 계량이 가장 낮은 신문은 중앙으로 3건에 217행이다.

◆ 국내 원전점검 최초로 지시

국내 원전점검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이날 처음으로 내려졌는데 6개지는 모두 1면 1단 또는 2단 크기로 간단하게 취급했다.

◆ 한국, 뒤늦게 비중급 상세하게

▲ 5월 3일 (5일째) : 한국이 뒤늦게 내, 외신에서 가장 강도있고 상세 (615행)하게 취급했으며 빈도(건수)면에서도 6건으로 가장 많이 게재했으며 동아와 서울은 전일에 비해 월등히 적은 3건, 5건이며 계량에서도 각각 55행, 71행씩이다. 또한 내신은 모두 한건도 취급하지 않았으며 강도면에서는 한국을 비롯, 조선, 경향, 중앙이 똑같이 「사고원전 동형 20기 모두 폐쇄」의 외신을 외신면 톱으로 보도했는데 한국의 경우 「테스크 진단」 「메아리」 등 칼럼에서도 비중있게 다뤘다. 내신은 한국과 조선만이 2~3건씩 취급했을 뿐 그외 4개 신문은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 서울 내·외신비롯 사설까지 강도있게

▲ 5월 4~5일 (6~7일째) : 사고원전의 진화에 따라 각 신문의 반응도 훨씬 줄어들어 동아, 중앙은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서울만은 15

일중 1일 다음으로 가장 높은 강도와 계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서울의 경우 사설에선 「핵에너지의 안전관리」란 제목으로 다뤘으며 7면은 전면을 할애할 정도로 「국내 원전의 안전현황」과 「방사능 치료」에 대한 특집을 다뤘으며 그외 조선, 한국, 경향등은 외신보도 3건만을 간략하게 취급했을 뿐이다.

◆ 경향, 「국내서 방사능물질 검출」 사회면 톱으로

▲ 5월 6일 (8일째) : 국내서도 충북지방에서 방사능 물질이 첫 검출됨에 따라 6~7일째인 5월 4~5일보다는 강도와 계량면에서 앞서고 있으며 조선의 경우 「방사능물질 검출」발표가 당일 상오에 있어 누락된 상태로, 3개지 모두 외신 3, 4건만을 1, 2단으로 간단히 취급했다. 그러나 석간들은 당국의 「방사능물질 검출」발표에 따라 외신보다도 내신에 더 큰 비중을 뒤 보도했다. 중앙의 경우 1면 5단 컷으로, 경향은 사회면 톱으로 다뤘다. 반면 동아만이 사회면 2단으로 가볍게 취급했으며 이날 빈도가 가장 높은 신문도 경향으로 7건이나 게재했다.

◆ 8일간 전반은 동아, 중앙이 비중있게 사고 보도후 8일동안의 보도경향을 분석해 볼 때, 전반은 동아, 중앙이 가장 빈도있고 강도 높게 보도했으며 후반은 서울, 경향이 높았다. 반면 총계에서는 조선이 2,011행으로 상세도가 제일 높았으며 다음이 동아 (1,951행), 중앙 (1,948행) 순이다. 8일간의 빈도는 서울 (31건), 동아 (31건)가 동수로 가장 많았다.

◆ 논평, 사진 모두 경향이 으뜸

사고보도 3일동안 논평기사와 사진 건수를 종합해 볼 때, 논평, 사진 모두 조선이 14건, 12건으로 가장 많이 게재했으며 다음은 동아로 논평 12건, 사진 11건을 게재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2건씩을 보도한 양이 된다. 신문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7일간 논평 7건, 사진 11건씩을 게재했고 조선은 논평 14건, 사진 12건을 실었다. 한국은 7건, 6건, 중앙

은 9건, 8건씩을 게재했으며 경향은 4건, 6건으로 6개지중 논평, 사진 모두 가장 적은 건수를 게재했다.

(6) 사설 및 기명논설

1) 사설

사설은 보는 측면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즉 첫째, 목적과 기능면에서, 둘째 체제구성면에서, 셋째 문체 및 언어면에서, 넷째 사설의 태도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으나 George Fox Mott의 사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사설은 발행인의 소리
- ② 대중의 여론조성
- ③ 각종기사의 공통된 이념적 추상체
- ④ 지역의 중대문제에 대한 반영

- ⑤ 신문자체의 책임감 발전
- ⑥ 지역발전의 기회제공
- ⑦ 해당지의 잠종기사의 종합체

이상과 같이 다양하게 사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신문의 사설은 대체로 사회문제의 반영이요, 국민여론을 지도 조성하는 해석적 지도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열거한 표는 이러한 기능면에 입각하여 체르노빌 사고당시 한국신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방향으로 지향하는가를 그 논지로써 살펴본 대표적인 한 보기이다.

결론적으로 이들 내용의 골격은 원자력발전은 국내 에너지원으로서의 그 비중은 자꾸 높아만 가는데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질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할 것과 더 철저한 안전점검과 나아가서는 국민의 생명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허점이 없기를 바란다는 취지이다. 원전의

○ 주요 신문사설 및 논지

지 명	제 목	논 지
중앙일보 4. 30	강건너 불인가 -소련원전사고의 교훈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보며,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우리의 특수여건에서 원전방어에도 각별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동아일보 4. 30	소련 핵발전 참사	소련은 이번 사고원인과 피해범위를 사실대로 밝히고 이웃 나라로부터 필요한 협력을 얻는 것이 순리다.
조선일보 5. 1	소련의 핵발전 사고 ~ 강건너 불아닌 타지의 들을 보듯	소련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화재와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하여 소련은 우선 감춰놓고 보자는 폐쇄성, 우리 원자력 발전장 치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서울신문 5. 4	핵에너지의 안전관리	핵에너지 안전관리, 특히 시설관리인의 기술과 긴장이 중요
한국일보 5. 3	원전 「안전」과 「장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건을 거울삼아 지나치게 경제성에 바탕을 두어서는 안되며, 안전성을 강구하고 원전요원에 대한 훈련, 고장이나 사고의 공개등 겸허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일보 5. 8	체르노빌 불은 꺼졌다지만	우리는 우리의 핵발전소가 보다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다른나라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완벽한 방사능측정 시스템의 정비와 비상대책 방법까지 미리 강구해야 한다.
동아일보 5. 10	체르노빌의 파장과 교훈	체르노빌」사건은 폐쇄사회와 비밀주의는 국가발전과 인류 복지 향상을 위해 손해를 줄 지언정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서울일보 5. 13	핵의 재난만을 공유할 것인가	이번 사고의 불행이 핵에너지의 안전관리와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공동 수혜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안전문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일이 아님을 일깨워줘 더 안전하고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고 있다.

(7) 국내 주요일간지별 기명, 기평기사

<해설, 사실, 칼럼 등>

서울신문	
1986. 4. 30	◇호흡통해 체내 축적되면, 제 3국서도 위험 (방사능오염 인체피해) --- 유세진
사설 5. 4	*핵에너지의 안전관리
5. 4	◇방사능 치료약 "아직 실험단계, 소 원전사고로 본 원자병과 처방, 흡수방사능 배출약제 연구활발 --- 박헌범
사설 5. 13	*핵의 재난만을 공유할 것인가?
조선일보	
1986. 4. 30	◇스웨덴 「방사능 보호약」 긴급지급 <체르노빌 원전사고 안팎> <소선 현지주민 소개> --- 반경 16 km 피해 클 듯 --- 오일환
사설 5. 1	*소련의 핵발전사고 <강건너 불 아닌, 타산의 돌을 보듯> ◦만물상 ◇<흑연제어기 과열로 노심녹아> 「멜트다운」확실 --- <최초 원인 두가지 설> 위그너에 너지 제거중 흑연 노출설, 원자로내부 화학적 폭발탕 주장도 --- 박기윤 △방사능낙진 어떻게 피하나 <비맞지 말고 빨래도 실내에 --- 옥외식사 삼가해야> --- 최문기 △다시 불붙은 반핵운동 <핵 알레르기 강한 북구쪽 직접 피해받아> --- 김주일
5. 2	◇방사능엔 국경선 없다 <서구, 소 정보제공 거부 심각한 우려, 국제 핵에너지지구 활용 강화될 듯 --- 박기윤
5. 3	◦만물상 ◦인터뷰 ◇"한국원전은 염려없다" <핵전문가 레베슨박사가 말하는 원전사고> 소련식 설계와는 달라 흑연대신 물사용, 안전사고난다해도 방사물질 노출안돼 --- 김 흥 ◇방사선에 쬐면 --- <구역질, 전신권태 첫증상, 생식능력도 감퇴> --- 김형기
한국일보	
1986. 5. 1	◇사고원인 <냉각장치 이상 원자로과열 추정 차폐시설 없어 방사능누출 확대> --- 강 승태
5. 2	◇원전 세계에 3백 74기 --- 한국은 대형 9기 : 소의 참사 계기로 본 실태 <경제성 불구 안전문제로 70년대후 신설없어, 구미형은 소형과 달라 "안전성은 높다" 설명, 한국 96년까지 선발용량의 40 %로 계획> --- 방민후
5. 3	◇테스크 논단 : 원전 --- 「안전과 장애」 --- 이광영 ◦메아리 : 언론자유 --- 정경희
5. 4	◇고르바초프 대외 이미지 먹칠 <소 당국 원전사고 보도통제, 동구마저 피해국 - 불신대두 --- 한기봉
사설 5. 8	*체르노빌 불은 꺼졌다지만
경향신문	
1986. 4. 30	△<냉각계통 이상 노심과열, 산소가 스며 화재일으켜> ⊙<사고원인> : 멜트 다운현상 - -- 송철복

경향신문	
1986. 4. 30	△〈현장사망은 최초 생태계 파괴 심각〉 오염후유증 수십년두고 나타나 □ 방사능 피해 --- 박인규
5. 2	△체르노빌사고로 본 실상, 소원전 절반이 구형 “전세계에 3백 74기 --- 10년간 백 51건 발생, 노심용융 일어날 확률은 백만년에 한번 --- 박인규
동아일보	
1986. 4. 30	* 소련 핵발전 참사
사설 5. 1	◇국내 원전안전도 이상없나 〈소 체르노빌사고 계기로 알아본다 : 엄격한 기준의 미국식 5중 안전방벽〉 (소선 감속제로 탈 위험 높은 흑연 쓰나, 우리는 경수를 이용) --- 김기만 ◇방사능오염면 열나고 빈혈증세 〈재해와 예방대책 : 심한면 유전자파괴 신체에 돌연 변이, 비 올때 우산휴대, 노출피부 잘 씻도록〉 --- 성하운
5. 2	◦ 횡설수설 ◇고르바초프 정치적 곤경에 〈소원전사고 정치 경계 외교 타격예상 : 실각면하겠지만 정치국 개편 불가피〉 --- 연국희
사설 5. 10	* 체르노빌의 파장과 교훈
중앙일보	
1986. 4. 30	* 강건너 불인가 〈소련 원전사고의 교훈〉 ◇온도제어 기능상실, 노심 녹은 듯 〈소원전사고 어떻게 일어났나, 보호용기 녹으면서 오염수증기 방출, 사고즉시 냉각 못시켜 핵연료 계속타〉 --- 장재열 △“방사능낙진 한국에 올 가능성 적다” 과기처 〈소련상공의 제트기류는 일본 북쪽으로 흘러〉 --- 김광섭
5. 6	◇방사선은 “양날의 칼, 전문의가 말하는 인체와의 관계, 1인당 년 200밀리렘 받아 --- 한번에 1렘 받으면 위험 --- 신종오 ◇완벽한 시공관리에 달렸다. 국내것은 안전한가 --- 핵사고 계기로 알아본다. 4기 가동중 --- 발전사고 1백 22건 --- 장재열
5. 7	△핵사고원전 아직도 불타고 있다. 〈조금씩 벗겨지는 베일속의 진상, 원인몰라 36시간후 주민대피, 모래 4천톤 투입, 진화, 방사능 제거작업〉 --- 김상호

(8) 신문별 논평기사와 사진 게재건수

① 논평기사 (그림 11)

논평은 특집기획을 비롯 해설, 사설, 칼럼 등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 조선, Box기사 15건으로 으뜸 15일간 6개지의 논평기사 총 66건으로 특집기획 17건, 해설 15건, 사설 7건, 칼럼 9건, 기타 18건 등이다. 신문별로는 조선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동아로 13건, 중앙, 한국은 각각 11건 씩이다.가장 적은 신문은 서울과 경향으로 조선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 8건씩이다.

◆ 서울, 동아, 사설에선 2건씩으로 가장 비중 있게 사설의 경우 서울, 동아가 각각 2건씩으로 가장 비중있게 다뤘으며 그의 경향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신문은 모두 1건씩 게재했다. 또한 가장 신속하게 사설로 다룬 신문은 동아, 중앙 등 2개 신문으로, 사고 보도 2일제인 4월 30일 똑같이 게재했다.

◆ 계량선 동아, 조선이 가장 많아 내용적인 면 (계량)에선 동아와 조선이 각각 1,265행, 1,263행으로 가장 많은 양을 게재했다. 다음은 한국으로 11건의 논평기사의 양은 1,143행이며 중앙은 1,037행이다. 서울과 경향은

(사실, 칼럼, 해설 포함)
(4.29~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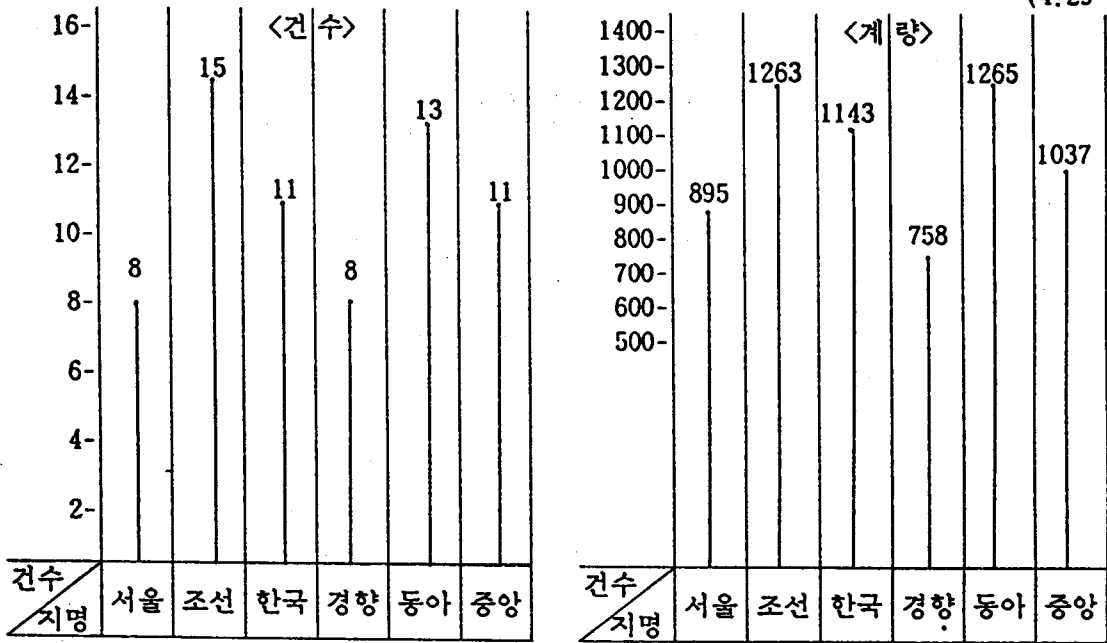


그림 11. 6개지의 논평 게재 건수(a)·양(b) (행수)

(지도 포함)
(4.29~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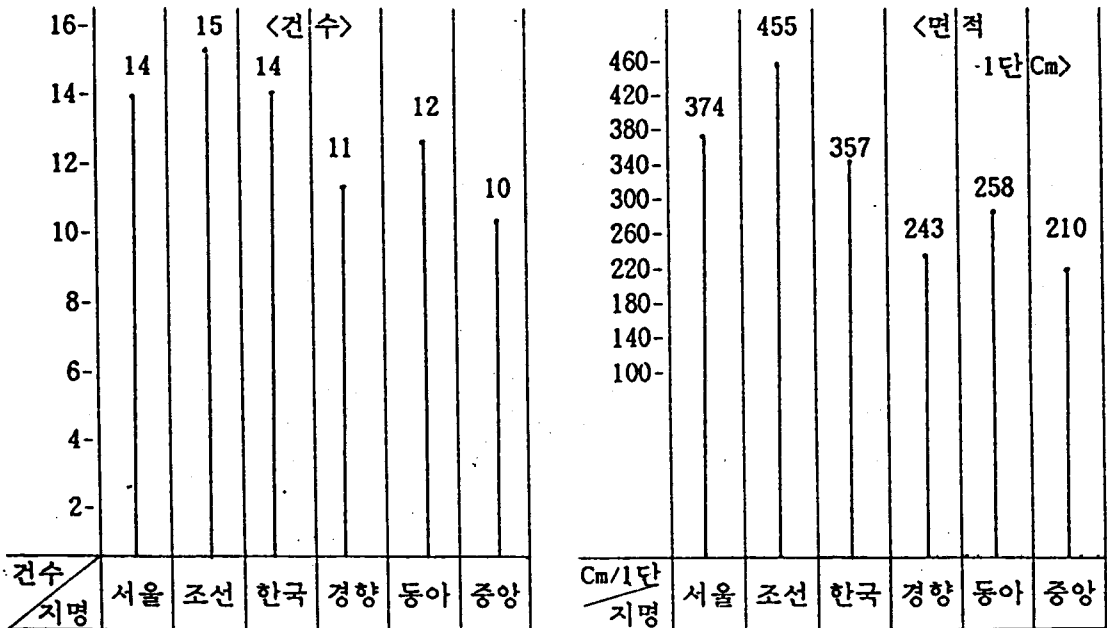


그림 12. 6개지의 사진 게재 건수(a)·양(b) (cm)

각각 895행, 758행으로 가장 적었다.

- ◆ 5월 1, 2일, 논평기사 가장 많아
날짜별로는 사고보도 3일째인 5월 1일과 2일에 전수와 계량에서 가장 많이 취급했고 자세하게 다뤘다고 할 수 있다. 경향을 제외하고 5개 신문에서 보도한 사실 제목은 다음과 같다.
- ◇ 서울신문 : ① 소 에너지의 안전관리 기술과 긴장요구된다. (5월 4일)
② 핵의 재난만을 공유할 것인가 (5월 13일)
- ◇ 조선일보 : ① 소 핵발전사고, 강건너 불 아니다. (5월 8일)
- ◇ 한국일보 : ① 체르노빌 불은 꺼졌다지만 ... (5월 8일)
- ◇ 동아일보 : ① 소 핵발전의 참사 (4월 30일)
② 체르노빌 파장과 교훈 (5월 10일)
- ◇ 중앙일보 : ① 소 원전사고의 교훈, 강건너 불인가. (4월 30일)
② 사진 게재 건수 (그림 12)
- ◆ 조선이 15건으로 가장 많아
각 면에 게재된 지도 (도안)도 사진의 범

주에 포함시켜 조사한 결과, 서울등 6개지가 17일 동안 총 76건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중 가장 크게 보도된 사진은 조선일보가 5월 2일자 1면 중간에 게재한 「위성에서 본 체르노빌 원전부근」사진으로 4단 13 cm의 크기였다. 15일중 가장 많이 게재한 날은 5월 1일과 2일로 기사의 게재 전수와 비례하고 있다. 특히 5월 1일은 20건이나 돼 전체의 25 %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빈도가 적은 날은 5월 14일과 15일 양일로 14일은 1건, 15일은 단 한건도 게재되지 않았다.

가장 적게 게재한 신문은 경향과 중앙으로 각각 10건과 11건씩 이다. 동아는 12건을 게재했다.

- ◆ 1일 평균 5건에 불과
그러나 총 76건의 사진수는 1일 평균 5건으로, 이는 신문별 1일 1건의 게재량도 안되는 수이다. 크기(면적)면에서는 조선이 총 1단 × 455 cm으로 가장 넓으며 서울이 1단 × 374 cm으로 그 다음이다. 반면 중앙은 1단 × 210 cm으로 가장 적은 면적이다. 경향과 동아는 각각 1단 243 cm, 1단 × 258 cm씩 이다.

The lists of the Real Story of Reporting Subjects in Korean Daily Newspapers (29 April 1986 - 15 May 1986)

〈범례〉 ◦ 의신 ◇ 쿨 ◆ 의신및 컷 ()가로 < > 세로

1986. 4. 29 [1일째]	
서울신문	◦ 소 원전서 방사능누출 <인근 3개국서 대피소동>
조선일보	◦ 소 원전서 방사능누출 <원자로 파손 -스칸디나비아 3국서 검출>
한국일보	◦ 소 원전사고 "2천 사망"
경향신문	◆ 소 원전 방사능누출 - 타스 공식보도, 우크라이나 소재 원자로 파손- <북구 4개국서도 탐지> <사상자수 엄청난 듯>

1986. 4. 29 [1일째]

<p>동아일보</p>	<p>◇소 원전사고 방사능 대량누출 〈우크라이나 원자로파손〉 천 6백 km 떨어진 스웨덴등서 정상의 6배 검출 ◦소 원전사고 낙수 ◦원전사고 일지 ◦사진 :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내부전경 (5.5 × 8 cm)</p>
<p>중앙일보</p>	<p>◇소 원자로 대규모 파손사고 〈방사능누출 희생 많아〉 우크라이나 천 6백 km 스웨덴서도 검출 타스통신서도 희생자 보도</p>

1986. 4. 30 [2일째]

<p>서울신문</p>	<p>◇소 원전사고 2천명 사망 (생존여인, UPI에 전화 “병원마다 환자 가득”) (체르노빌 시민 6만 전원소개) 〈전세계에 방사능오염 공포, 한반도엔 낙진 위험성 희박〉 ◦일도 낙진 비상 △기상대 “피해없을 듯” ◦모스크바 UPI연합〉 피해 ◇호흡통해 체내 축적되면 제 3국서도 위험 (방사능오염 인체피해) --- 유세진 기자 ◦사고낸 원자로 사진 9 × 13 cm</p>
<p>조선일보</p>	<p>◇일에 방사능낙진 예상 (소 원전사고 각국에 불뚱) ◦「죽음의 재」이틀후면 도착할 듯 〈발전소 아직 화염 --- 보안지대 선포〉 ◦〈군사목적으로 플루토늄 생산설〉 ◦세계 원자력사고 일지 △스웨덴 「방사능 보호약」긴급지급 〈체르노빌 원전사고 안팎〉 〈조선 현지주민 소개 --- 반경 16 km 피해 클 듯, 방사능구름, 북구거쳐 5~6일후 미-캐나다에〉 --- 오구환 ◦사진 9 × 12 cm 체르노빌 원전내부 ◦도안(지도) 북극지도 5 × 6.5 cm △ 소 원전누출 사고 국내엔 아직 영향없어</p>
<p>한국일보</p>	<p>(체르노빌 원전파손 --- “불길 못잡아”) ◇소, 서독등에 “진화 도움”, 요청 〈최악의 「멜트다운 현상」확실 주변 30 km내 보호지역 선포〉 ◦수폭 주요원료 플루토늄 생산 서방 전문가 분석</p>

1986. 4. 30 [2일째]

한국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르노빌 발전소 1천 메가와트 4기 방호구조물은 없어 노심온도 2천도 이상 상승 보호용기 녹으면 방사능누출 ◦ 사진 7.8 × 9.5 cm 고장난 체르노빌 핵발전소 ◦ 도안(지도) 4 × 3 cm 복구
경향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원전사고 2천명 이상 사망 〈서방 전문가 “노심용해” 추정 --- 기술적 통제 불가능, 주민 만 5천명 긴급 소개 조치〉 ◦ 화재진압 지원요청 〈소, 서독·스웨덴 등 서방에〉 ◦ 사고난 원자력발전소, 군사용 플루토늄 생산 ◦ 사고난 핵발전소 안전모델 찬양, 소지 지난 2월호에 ◇「죽음의 재」일본에 낙하가능 --- 동경 김세환 특파원 △〈냉각계통이상 노심과열, 산소가 스며 화재 일으켜〉 ◦ 사고원인 : 멜트다운 현상 --- 송철준 기자 △〈현장 사망은 최초 생태계 파괴 심각, 오염 후유증 수십년 두고 나타나〉 --- 박인규 기자 ◇방사능 피해 〈세계 원자력현황〉 ◦ 사진 9 × 6 cm 소비에트 라이프지 86년 2월호에 게재된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원자로노심 냉각시스템, 이번 사고는 냉각시스템의 이상으로 노심이 과열돼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소 원전사고 방사능측정 한국 아직 영향없어”
동아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원전사고 3천명 사망 〈소선 2명 보도 희생자 핵폐기물 처리장에 묻어 26일 오전 발생한 듯 --- 반경 16 km 완전 오염 인구 3백 20만의 인근 키예프시. 수원 위험〉 ◦ 방사능낙진 풍향 바뀌어 서구서 소로 되돌아가 ◦ 군사용 플루토늄 생산, 체르노빌원전 ◦ 소, 서방언론 취재불허 ◦ 화재진압 긴급요청 소, 서독·스웨덴 등에 ◦ 서구, 소·동구 여행 중지촉구 〈동경 정상회담서 거론하자 주문도, 이웃한 폴란드 “인체피해 없다” 태연〉 ◦ 원자로 핵심부 온도 급상승 내부 용기 녹아 방사능누출 : 멜트다운 현상 ◇원자로 보호용기 없어 피해확산 〈미 과학자가 보는 소 원전사고〉 구식인 흑연 사용이 화근, 원자로 자체 핵폭발은 없었던듯 △사설 : 소련 핵발전 참사 △방사능 과다 노출땀 서서히 죽어가 --- 과학부 ◦ 사진 : 6 × 9.5 cm 소비에트 라이프지 86년 2월호에 실린 「체르노빌 원전 원자로의 핵 냉각시스템」

1986. 4. 30 [2일째]

동아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 5.5 × 9.5 cm 원자력발전소 전경 ◦ 도안(지도) : 소련에서 북미방향으로의 풍향도
중앙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웨덴 방사능 평소의 100배 〈소 원전사고뒤 비, 눈서 검출 「방사능낙진을 막아라」 각국 초비상 치료약 공급, 예방접종, 우유폐기, 가축 도살도 중단, 제트기류로 일주후 일 도착 ◆EC “사고발표 늦춰 피해크다” 비난 〈소 원전사고 이모조모 : 위험빙자 서방기자 취재막아, 사고전엔 가장 안전한 모델로 찬양도, 망명 소학자 ◆온도제어 기능상실 노심 녹은 듯 〈소 원전사고 어떻게 일어났나, 보호용기 녹으면서 오염수증기 방출, 사고 즉시 냉각 못시켜 핵연료 계속 타〉 --- 장재열 기자(1면 기사) ◆소 원전사고 3천명 이상 사망 〈체르노빌시 주민대피 - 아직도 진화못해〉 ◦ “사고 수습지”원 미 국무성 △ “방사능낙진 한국에 올 가능성 적다” 과기처 〈소련 상공 제트기류는 일본북쪽으로 흘러〉 --- 김광섭 △사실 : 강 건너 불인가 〈소련 원전사고의 교훈〉 ◦ 사진 6 × 9.5 cm 동아와 동일 ◦ 도안(지도) 6.5 × 5.5 cm 〈체르노빌 원전사고 예상 오염지역도〉

1986. 5. 1 [3일째]

서울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원전 1기 또 폭발 (4면) (“나머지 2기도 위험상태” 미 정보소식통) 〈잇단 참사로 3천명 이상 사망, 방사능 계속 누출 거의 손 못써〉 ◦ 일 히로시마 원폭과 맞먹는 위력 미 「스리마일」의 백만배 예상 ◦ 키예프시 대혼란 (당국 발표없어 시민 우왕좌왕) ◦ “원자로 2기 용해” 화(네델란드)아마무선사 청취 ◦ 원자로 속 핵연료폭발이 원인 (미 학자 소원전 사고분석) 〈우라늄 캡슐서 방사능물질 방출 연료용해, 핵폭발 없을 듯〉 ◦ 인도서도 핵 중수공장 화재 90분만에 진화 --- 수백 가구 대피 ◦ 사고내용 공개하라 유럽 각국 소에 촉구 △인체 1천 래드 노출땀 사망, 1차적 증상은 조혈, 장기능 장애 --- 방사능 피해와 방지책, 서울대 의대 치료방사선과 강위생 박사 ◦ 사진 7.5 × 11 cm 86년 2월 소비에트 라이프에 실렸던 사고원전 핵냉각시스템 ◦ 사진 6.5 × 11 cm 사고원전 내부 ◦ 사진 5 × 5 cm 오염측정
조선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원전 2호기도 폭발 (1면)

1986. 5. 1 [3일째]

조선일보	<p>「핵 재앙」확대 “사망 3천 --- 대량살상 진행” 진화 손 못대 --- 유럽전역 오염확실</p> <p>▲만물상 ▲“한국 낙진피해 회박” 소「핵 구름」만주서 동진 가능성 〈사고지역 제트기류 통상 일부부 통과, 만약 대비 관측망 풀가동〉 --- 허남 안전규제 담당관</p> <p>△만화 ▲시설 소련의 핵발전 사고 〈강건너 불아닌, 타산의 돌을 보듯〉 ◇(“보이는 것은 죽음뿐” --- 수만명 피난행렬) 〈“만여명 수년내 폐암사망” 동북구 농산물 큰 타격 --- 수질오염도 심각 희생자 핵폐기소 매장 - 반핵전여론 고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전 “안전” 찬양 ◦ 소 정부 백 구십칠명 입원 ◦ 개국 원전보유 --- 전 세계 에너지 16 % 차지 <p>◇〈우유 판금 --- 동구 여행 자제 촉구 각국 피해방지 대책과 반응〉 ◇〈흑연 제이기 과열로 노심녹아〉 〈「멜트다운」확실 --- 최초 원인 두가지 설, 위그너에너지 제거중 흑연 노출설, 원자로 내부 화학적 폭발탕 주장도〉 --- 박기환 기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10 × 3.5 cm 체르노빌원전 전경 10 × 8 cm 체르노빌원자로 일부 8 × 6.5 cm 방사능 성분측정 <p>△ 방사능낙진 어떻게 피하나 〈비 맞지말고 빨래도 실내에 ..., 옥외 식사 삼가야〉 --- 최문기 기자</p>
한국일보	<p>(1면) 소 원전 방사능누출, 3천명 이상 사망 ◇〈소 원전사고 피해, 북구와 세계의 반응〉 (국제 협력언어야 진화가능) 〈수질오염 심각 --- 과흡수땀〉 ◇사고원인 〈냉각장치 이상, 원자로 과열추정 차폐시설 없어 방사능누출 확대〉 --- 강승태기자 ◇파급영향 : 동구권 에너지공급 당장 위협 (소 플랜트, 장비 큰 타격 예상 우유등 오염땀 낙농 산업은 끝장) △소 원전 방사능측정 비상, 과기처 하루세번 측정, 아직은 낙진없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10.5 × 5.5 cm 5. 1 서울 신문 동일 ◦ 사진 9 × 6 cm 5. 1 서울 신문 동일 ◦ 사진 12 × 10 cm TV화면을 촬영한 사고원전 전경 (불란서 TV) ◦ 도안 (지도)
경향신문	<p>◇소 또 다른 원자로사고</p>

1986. 5. 1 [3일째]

경향신문	<p>(미 인공위성 촬영 사망자 4천명 넘는 듯) <스웨덴 등 인접국가 비상태세> ◦ 서방측 사망자수 부인, 소·백 구십칠명 입원발표 ◦ 소 원전사고 주 의제로 동경 선진국 정상회담 ◦ 소에 조속 진상공개 촉구 <서구 동맹 7개국 국방, 외무회의> ◆“물조차 마시기 겁난다.” 키에프 시민들 갈피 못잡고 “전전공공” “로봇트 없으면 진화어렵다.” 미 전문가 ◦ 사진 10 × 8.5 cm 30일 저녁 프랑스 앙텐 2 TV에 방영된 소련 체르노빌원전 오른쪽이 이번 사고로 파손된 부분이다. <파리=AP전송 연합> ◦ 만화 (7면) △방사능 불안 --- 빗길따라 우산행렬, 과기처 영향없다 발표 ◦ 사진 전국적으로 비내리는 사진</p>
동아일보	<p>◆소 원전 2기 더 폭발한 듯 <죽음과 불길의 체르노빌 “오염안된 음식을 절규” “우유먹지 말고 빗물 사용말라”, 외국인 철수, 유럽에 핵공포 - 임산부 어린이 외출 삼가 ◦ 진화에 로버트 사용 ◦ 각국 비상대책 마련 ◦ 동경 7개국 정상회담서 소 원전사고도 의제로 ◆미국의 눈 : KH-11 첩보위성, 소 원전사고 발생때부터 흰히알아> <8억 달러 짜리 --- 4백 km 상공서 살살이 촬영 소는 「부처님 손안의 손오공」 ◦ 지난 10년간 핵사고 14개국서 백 오십일건 미의회 보고서 ◆사망 4,000명 추산 <키에프 시민 2백 30명 소개필요, 화재계속 폐쇄사회 정확한 정보몰라 시민 아우성> ◦ 제트기류 통과 안해 방사능 피해 없을 듯 : 일정부 판단 ◦ 구미 진상 공개촉구 △만평 : 우산을 씹시다. ◆국내 원전 안전도 이상없나 <소 체르노빌 사고 계기로 알아본다. 엄격한 기준의 미국식 5중 안전방벽> (소선 감속제로 탈위험 높은 후연 쓰나, 우리는 경수를 이용) ◦ 도안 7.5 × 9.7 cm 원자력 발전소의 다중 방호벽 --- 김기만 기자 ◆방사능 오염땀 열나고 빈혈증세 <재해와 예방대책 : 심하면 유전자 파괴 신체에 돌연변이, 비울땀 우산휴대, 노출피부 잘 씻도록> --- 성하운 기자 ◆<원전현황 : 전세계 3백 74기 전력 16 % 공급, 일부 국가에선 위험우려 건설 보류하기로></p>

1986. 5. 1 [3일째]	
동아일보	<p>◇봄비 속「낙진과민」 “기분이 이상하다”</p> <p>비 안맞으려 우산 불티 학교선 초중등 야외 행사 취소하 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12 × 9 cm 소 사고원전 설명: 경향 5. 1 사진설명과 동일 ◦ 사진: 7 × 8.5 cm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1차 방사능 차폐벽실 내부 (소비에트 라이프지 2월호에 게재된 것)
중앙일보	<p>△만평 <불 불 불></p> <p>◇방사능 낙진은 없어도…</p> <p>(빗속 출근, 등교길 “조마조마”)</p> <p><“장독대에 비닐 세겹 덮고 우산씨도 안심안돼요”, 이번 비엔 방사능없다 --- 과기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몸조심 ◦ 사진 1명 방사능 차폐벽 ◦ 옆 원자로도 화염에 <소 원전사고, 4천명 사망설도> ◦ 미·일 곡물값 폭등 <소 원전사고 여파> ◦ 소 원전사고 이모저모 <화재 진압에 로봇 사용권고 (서독), 사고지역 시민들 상황몰라 혼란, 폴란드 병원엔 약 찾는 인파 장사진, 전문가들 스웨덴도 6백명 사망 예상> ◦ 원전사고 정보 공개하라 <미 소대사에 의료, 기술지원제의> ◦ 사망자 서방보도 부인, 소 파괴된 발전소 모습 공개 ◦ 사진: 파손된 소 원전 ◦ 미 소원전사고 하루전에 알았다. <첩보위성이 사전탐지 문제 원전사진 보내와> ◦ 진상 빨리 공개를, 서방 7개국 소에 촉구 ◦ 다른 3기 발전중단, 주영 소대사 설명
1986. 5. 2 [4일째]	
서울신문	<p>“소 원전누출 방사능 히로시마의 2천배”</p> <p>(미 물리학자: 발암사망 7만명 초과 전망)</p> <p><유럽 전반 낙진피해 예상: 스웨덴 학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사고 원자로 진화 <서방지원 거절 --- 미선 2기 폭발설 철회> <사망 늘어 4천명 설> ◇「내우」에 시달리는 고르바초프 <원전사고가 소에 미칠영향> <곡창지대, 물오염으로 경제개혁 저해, 전력공급, 핵전 대동구 수출 등도 차단> --- 워싱턴발 특파원 이정연 ◦ 소 정치체제 변혁가능성 <미지보도 핵원전사고뒤 미선 곡물가 폭등>

1986. 5. 2 [4일째]

<p>서울신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방사능 낙진, 하루새 20 % 감소 ◦ 74~84년중 핵사고 14국서 백 51건 발생 ◦ 핵 분열 반응 중지, 유엔 소대표부 발표 ◦ 동경 7개국회담서 긴급의제로 채택 ◦ 영, 핀란드인 철수시작 ◦ 사진 12 × 9.8 cm 경향신문 5월 1일자와 동일
<p>조선일보</p>	<p>△노 총리, 원전 안전점검 지시 △한마디 「비고」 허남 과기처 원전안전 담당관 ◦ 사진 13 × 12 cm 위성이 본 체르노빌 원전 부근 △만물상 ◇소 사고 원전진화 주장 (유럽 지역서 낙진감소) “나머지 원자로 3기는 폐쇄” 사망자 크게 늘어 4천여명까지 예상 ◦ 소, 미수습지원 거부 ◦ 「원전사고」 25일 발생, 고르바초프 미에 밝혀 ◦ 미 곡물 시장 폭등 소 노동절행사 --- 참사엔 무관심 미 위성 통해 사고초기부터 알아 ◦ 사진 7 × 6.2 cm 타버린 소 원전 ◇다시 불붙은 반핵운동 〈소 알레르기 강한 북구쪽 직접 피해받아〉 --- 김주일 기자 ◇방사능엔 국경선 없다 〈서구, 소 정보제공 거부 심각한 우려 국제 핵에너지 기구 활용 강화될 듯〉 --- 박기윤 기자</p>
<p>한국일보</p>	<p>◇원전 세계에 3백 74기 --- 한국은 대형 9기 : 소의 참사계기로 본 실태 〈경제성 불구 안전문제로 70년대후 신설없어 구·미형은 소형과 달라 “안전성은 높다” 설명 한국, 96년까지 총발전용량의 40 %로 계획〉 --- 방민준 기자 ◦ 사진 9.5 × 8 cm 위성이 찍은 체르노빌 원전주변, 조선일보와 동일 ◇“원전참사 「고르바초프 체제 변혁 가능성” LA타임즈, 소 지도층 경제계획 차질우려 6일째 “버섯구름 화염” 사망 2~4천명 추산 ◦ 원전사고 스케치 “발암사망 광도 희생 능가할 것” ◦ 미선 첩보위성 KH11통해 소 참사 살살이 파악 △비오자 방사능 신경 〈우산 서둘러 준비 --- 야외 행사 취소사태 : 과기처 “빗속낙진 측정안됐다” ◦ 사진 12 × 9.5 cm 우산으로 뒤덮인 거리</p>

1986. 5. 2 [4일째]	
경향신문	<p>◇소 원전사고 “핵 분열현상 끝났다.” 주장</p> <p>◇체르노빌 사고로 본 실상, 소 원전 절반이 “구형” 전세계에 3백 74기 --- 10년간 백 51건 발생, 노심용융 일어날 확률은 백만년에 한번 --- 박인규 기자</p>
동아일보	<p>◇소 사고원전 핵분열 그친듯</p> <p>〈미 원전 추가 폭발 주장 철회, 낙진감소 --- 주변국 위험은 상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발암 사망 7만 넘을 듯 ◦소 원전사고 이모저모 <p>〈소련 뒤늦게 고개숙이고 서방에 도움요청, 미 농민, 곡물업계 “불황은 끝났다.” 희 희낙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진 7.5 × 5.3 cm 핀란드 국립 방사능연구소 연구원들의 트리튬 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사진 7.5 × 5.3 cm 스웨덴 병사들의 공기오염을 측정하는 특수필터를 옮기는 사진 <p>△횡설수설</p> <p>◇고르바초프 정치적 곤경에</p> <p>〈소 원전사고 정치, 경제, 외교적 타격예상〉</p> <p>실각 면하겠지만 정치국 개편 불가피 --- 연국회 기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진 8.5 × 6 cm 「빈」공항에 도착한 여행객이 방사능오염 측정검사를 받고 있다. <p>◇원전사고 소 은폐에 세계분노</p> <p>〈최악의 원전참사와 각국의 시각〉</p>
중앙일보	<p>◇소 원전 화재 진화 된 듯</p> <p>〈방사능 오염제거나서, 국제기구에 통보, 주변국 낙진 줄어들어, “두번째 원자로 화염” 은 오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진 7.5 × 6.5 cm 위성이 본 체르노빌 원전, 조선일보 5. 2일자와 동일 ◦소 체르노빌 사고 이모저모 <p>〈일광도(히로시마)때 보다 암 희생자 많을 듯, 소 “기술충분 지원 필요없다” 장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안 5 × 6 cm 소련의 원전배치도 ◦소 원전사고를 보는 미국의 눈 <p>〈소 외교, 경제면서 큰 타격 예상, 노상 은폐로 서구의 노여움 사, 집권체제에 까지 영향 미칠듯〉</p> <p>(환경보호 반핵운동 전세계 확산조짐) --- 워싱턴 창두성 특파원</p>
1986. 5. 3 [5일째]	
서울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상 최악 참사, 소 관리도 시인, 체르노빌 원전사고〉 - AFP연합 통신 ◦사진 영서 반핵시위 <p>◇소, 사고 동형 원자로 20가 폐쇄</p> <p>〈영지 보도 설치분 전부 - 심각한 전력난 예상, 런던 AP연합 특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직도 진화 못해 미, 이 핵전문가” <p>〈에루살렘, 워싱턴 AP, UPI 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독 5개 주 우유, 판매금지 고려

1986. 5. 3 [5일째]

<p>조선일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소 원전사고 외교조치 〈레이건 동경착 --- 부시에 각료회의 지시〉 ◈소 “동형의 원전 20기 전부 폐쇄” 〈심각한 에너지 난 겪을 듯, 참사여파로 정치, 경제, 외교등 큰 타격〉 ◦소 핵에너지책 “대참사” 시인 ◦〈소 원전서 누출 방사능, 프랑스등 4개국에 확산〉 ◦사진 11.5 × 9 cm 런던의 반핵시위 ◈“한국원전은 염려없다.” 〈핵 전문가 레벤슨박사가 말하는 원전사고 소 형식 설계와는 달라 흑연대신 물 사용 안전 사고난다해도 방사물질 누출안돼〉 --- 김 홍 기자 ◈방사선에 쬐면 --- (구역질, 전신권태 첫증상 --- 생식능력도 감퇴) --- 김형기기자 ◈방사능 물질이란 핵 붕괴시 입자선을 방출하는 것 ◦사진 레벤슨박사 회견사진
<p>한국일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사고원자로 동형 20기 가동중단 〈유럽 전역 방사능 확산, 동독, 네덜란드, 루마니아, 프랑스등도 검출 --- 대책부심, 스웨덴 “계속 누출” --- 소선 “수습단계” 주장 ◦원전사고 이모저모 〈지원거부하다 미 의사 입국허용, 소서 귀국 일인 4명 방사능검출〉 ◈테스크 논단 --- 특집 과학부장 이광영 원전 --- 「안전과 장래」 ◦사진 8.5 × 7.7 cm 소 외교관 미하원 청문회서 사고증언 ◦WHO 비상대책회의 △메아리 언어자유 정경희 소 원전사고 영향없다, 정부밝혀
<p>경향신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소 원전사고 외교대책 논의 〈안전에 관한 추가정보 탐색, 각료회의 개최지시 - 레이건〉 ◦미·소 정상회담 어려울듯 〈루거 미상원 외교위원장, 원전사고 보도지연으로, 고르바초프 적잖은 정치적 타격〉 ◦원전사고 동보안해, WHO 소 조치 비난 ◦방사능구름 유럽전역 확산, 소도 사상최악 핵재난 인정 ◦사고 동형 원자로 소, 20기 모두 폐쇄, 심각한 전력난 발생우려 ◦사진 7.5 × 6.0 cm 낙진위험 대비 목욕부터 (어린이 목욕장면)
<p>동아일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사고원자로 동형 20기 폐쇄, 심각한 전력난 겪을 듯〉 ◦〈소 원전폐쇄 따라 유가 1달러 상승〉 ◦〈방사능 유럽전역 확산, 소 최악 핵재해 첫 인정〉
<p>중앙일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사고 원자로 동형 모두 폐쇄 총 20기 --- 전력난 우려, 화재진압, 방사능은 계속누출 ◦〈핵금협정 원한다, 소 종전입장 되풀이〉 ◦〈WHO서 소 비난 “원전사고 위험 통보안해”〉

1986. 5. 3 [5일째]	
중앙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유가 1달러 올라 <소 핵발전 --- 수출량 감소예상> ◦원전대책도 협의 동경회담 내일 개막 ◦미 핵잠수함 2척 좌초 <1척 대파 --- 방사능 누출없다>
1986. 5. 4 [6일째]	
서울신문	<p>△사설 핵에너지의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이전, 일·이탈리아 정상과 이견조정 오늘 동경회담 앞두고 개별접촉 소 원전사고 공동대처도 협의, 소에 정보제공 촉구할 듯 ◦<워싱턴 AFP, AP 연합> ◆방사능 치료약 아직 시험단계 [비고] 유성렬박사, 진수일박사 커멘트 소 원전사고 계기로 본 원자병과 처방 흡수 방사능 배출 억제연구 활발 <골수 먼저손상 --- 뇌, 척수신경 장애 전신 노출땀 수년내 암, 백혈병 유발> --- 박재범기자 ◦사진 국내에서 방사능 오염을 측정 ◦사진 가압수로형 발전소 내부구조 <p>△국내 원전 5중 방호벽속에 <소 흑연 감속식보다 안전한 가압수로형> (이상 생기면 핵반응 가동중지, 사고나도 방사물질 누출안돼, 미션 비상대처 인공지능화 연구)</p>
조선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원전사고는 인재, 부근 일대 출입통제”> 모스크바 당서기 밝혀 ◦<방사능 공포 외국인 돕기로 미 약사 오염방지제 수입열중> ◦사진 9 × 9 cm 핵공포를 씻자 (어린이 씻는 사진)<경향신문 5. 3 동일> ◦동경 7개국 정상회담 개막 3일간 6차례 소 원전사고도 주의제
한국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사고원전 30 km「접근금지」선포 <방사능 치명적 수준 2배 넘어, 인간활동등 생존불능, 엘트신 모스크바 당 1서기 밝혀> ◦미 낙진전문가 분석 <인근 8~16 km 주민중독 사망할 수도 20~30년내 1~10만명 암을 숨겨> ◦7.5 × 6.3 cm 낙진피해 줄이기 안간힘 <경향신문' 5. 3 동일> ◆고르바초프 대외 이미지 먹칠 소 당국, 원전사고 보도통제, 동구마저 피해국 - “불신대두” ---한기태기자
1986. 5. 5 [7일째]	
경향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전 안전 운영, 반테러 합의 <동경 선진 7개국 정상회담 개막> ◦일서 방사능물질 검출 <소 원전사고 여파 “빗물등 마시지말라”> ◦<모스크바 일원 방사능, 소 미전문가 측정허용>

1986. 5. 5 [7일째]	
동아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원전 반테러 성명발표 ◦ 미 방사능 전문가 소로
중앙일보	◦ <소 원전사고로 주민 5만대피> <레트신 제 1서기 밝혀>
1986. 5. 6 [8일째]	
서울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체르노빌 원전 방사능누출 봉쇄 ◦ 최근 영 원전서도 방사능누출사고 <런던연합> ◦ 소 원전전에도 사고, 한달전 만취 근로자 실수 ◦ 핵안전 반테러 2개 성명도 채택
조선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핵발전소 사고 예고된 참사 <경제성에만 치중 안전소홀, 81년에도 비슷한 사고무시> --- 데이비드 마플즈 ◦ 일, 방사능검출 긴급개의 ◦ 반 테러 공동성명 - 핵사고 공개요구 ◦ 동경 = 김윤곤 특파원
	◦ 테러경고, 대소 원전책임 추궁
한국일보 경향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방사능낙진 첫 검출 <과기처 발표 : 어제 충북에 내린 빗물속서 "미량" 자연수 마시지 말고 장독 꼭 덮도록> △방사능 피해예방은 이렇게 ◦ 8천명 발암가능 ◦ 소 원전사고당시 화염 30 m 치솟아, 프라우다지 첫 보도 ◦ 체르노빌 원전방사능 소 모래등 이용 봉쇄 ◦ 소, 동경핵선언 비난 ◦ 사진 8 × 4 cm 방사능물질 검출감지기 (여인이 들고 있는 사진)
동아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주지역 빗물서 소 원전낙진 검출 <양 적어 해 없지만 빗물 먹지말도록> ◦ 사진 소형 방사능검출기 ◦ 소 원전사고 고의적 신경전 ◦ 동경회의에서 「소련 원전성명」
중앙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지방 빗물에 방사능 <과기처 : 미량이지만 주의 필요, 비맞은 과일, 채소는 씻어 먹도록> △서울, 충남, 강원 빗물서도 미량의 방사능검출 ◦ 휴대용 방사능탐지기 <경향과 동일> ◇방사선은 "양날의 칼" 전문의가 말하는 인체와의 관계, 1인당 년 200밀리렘 받아 --- 한번에 1렘 받으면 사망 --- 신경오 기자 ◦ 사진 8 × 4 cm 핀란드 과학자들의 소련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물질을 조사 하는 모습 ◇완벽한 시공관리에 달렸다. 국내것은 안전한가 --- 소 사고계기로 알아본다 --- 장재열 기자

1986. 5. 6 [8일째]	
중앙일보	<p><4기 가동중 --- 발전사고 1백 22건, 경제성만 너무 따지면 위험, 순간실수 가능성> (세계 핵사고의 60 % 인재) ◦ 사진 12.8 × 7.6 cm 고성(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구조</p>
1986. 5. 7 [9일째]	
서울신문	<p>◦ 유럽인 8천명 발암가능 <스웨덴 소원전 방사능측정 : 미 「스리마일」의 천배> ◦ 소 원전 누출 방사능 북미 상공서도 검출 ◦ 사진 5 × 7 cm 포켓용 방사능검출기를 들고 있는 여인 ◦ 동구권 농산물 수입 EC서 무기한 연기 △소 원전낙진 총주서 검출 <5일 내린 비에 방사능 미량섞여 인체해 없지만 자연수 걸러 마셔야></p>
조선일보	<p>◇총주서 소 원전방사능 검출 : 파기처 - 빗물에 「미량」 --- 영향없지만 주의 ◦ 소 원전사고 진상 일부공개 화학 폭발 추정 --- 불길 30 m 치솟아, 원자로 4기중 한개가 부분파괴 <모스크바 AP 연합> ◦ 사진 방사능탐지기</p>
한국일보	<p>△충북 빗물에 방사능 미량이나 자연수 마시지 말도록 ◇방사능 --- 인체에 끼치는 피해 <비맞은 과일, 채소 씻어 먹어야, 충북지방 검출량 우려안될 정도, 토양오염 - 식물, 동물 흡수가 문제> --- 특집 과학부 ◦ 6 × 4 cm 방사선에 취약한 기관 (인체도안 임) ◦ 방사능 오염 가능 식품 소 동구 수입중지 제안 ◦ 화학폭발이 사고원인 과소 평가로 조치늦춰 소 「원전회견」</p>
경향신문	<p>◇우리 원전 안전하다 [비교] 파기처 원자력안전심사관 (유육중) 커멘트 <소 사고계기로 본 국내현황>, 지하 60 m - 강진에도 끄떡없어 콘크리트, 철벽으로 5중장치 ◦ 사진 8 × 5 cm 고리원전 전경 ◦ 도안 8 × 4.5 cm 원자력발전소 가압경수로형 ◇방사능 공포 막을 수 없나 [비교] 진수일박사 커멘트 <인체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 빈혈, 구역질, 설사, 탈모증 초기증상 1만래드 이상 찍면 수시간내 사망, 방역제 국내개발 골수이식 효과커> ◇소 원전사고, 36시간후에야 주민대피 <현장서 당초 과소평가, 2명만죽고 2백 4명 치료중, 소 조사위 120일만에 내용 발표> ◦ 소 원전 방사능누출 타국 영향 없는 듯 --- 미교수 분석 ◦ 동구권산 농산물 금수 EC합의</p>
동아일보	<p>◦ 소 원전 아직 불타 : 프라우다지 보도 ◦ 동경 7개국 정상회담 내용중 「원전사고 성명」에서 대소 비난은 상당히 억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요약</p>

1986. 5. 7 [9일째]

<p>중앙일보</p>	<p>◇방사능이 “쉬쉬”할 일인가 (최대한의 경보하는게 원칙) --- 취재일기 김광영 과학부 △소 사고원전 아직도 불타고 있다. <조금씩 벗겨지는 베일속의 진상 원인몰라 36시간후 주민대피 모래 4천톤 투입, 진화, 방사능 제거작업> --- 김상도 기자 ◦(원전사고로 석유수요 늘 듯) 유럽, 일본등 원전건설 계획 중단 가능 <OPEC 산유량 늘려></p>
-------------	---

1986. 5. 8 [10일째]

<p>조선일보</p>	<p>◦위기감축 센터 설치협상 <미-소, 우발핵전쟁등 대처위해> △국내 원전 안전점검 실시 - 과기처</p>
<p>한국일보</p>	<p>◦미-소 우발적인 핵전쟁 「위기감축 센터 설치」 ◦원전사고로 농사망쳐, 이탈리아 농부 크로미코 제소 △사설 : 「체르노빌」불은 꺼졌다지만</p>
<p>경향신문</p>	<p>◦우발적 핵전쟁 통제목적 「위기감축센터」 미-소 설치합의 △서울, 충주등 4곳 방사능검출</p>
<p>동아일보</p>	<p>◦미-소 「위기감축센터」 설치합의 제네바서 비밀협상, 우발적 핵전쟁등 통제 목적</p>

1986. 5. 9 [11일째]

<p>서울신문</p>	<p>◇소 "방사능 대탈출" 소동 <인근 키예프시, 역, 비행장마다 장사진, 타스통신> ◦소, EC에 곡물판매 요청 <EC선 동구산 식품 금수결정> : 방사능오염 관련</p>
<p>조선일보</p>	<p>◇서독, 소에 「핵 낙진」 손배소 검토 <EC, 동구육류 금수결정, 소 “우크라이나 황폐화” --- 곡물수입 모색> ◇소 키예프시민들 탈출소동 <원전사고 이후 「핵공포」만연, 역, 공항엔 대표위해 장사진> ◦사진 8.7 × 13.5 cm 폐기된 「방사능 채소」 △서울-충북도 「방사능」빗물 인체엔 영향없어</p>
<p>한국일보</p>	<p>◇유럽 소 방사능누출에 대책 <우류, 채소등 판금조치> 키예프시민 대탈출 --- 철도, 항공표 매진 소, EC에 식량 공급 요청 ◦원자로 계속 불타, 소 정부기관지 보도 ◦소, 원전사고 3명 사망 ◦사진 7 × 10 cm 폐기시킨 오염식품</p>
<p>경향신문</p>	<p>◇소 원전 15일째 “불길” <방사능 뿜어, 진화총력 키예프 주민 탈출소동, 언론도 사태심각 인식 사실 보도></p>

1986. 5. 9 [11일째]	
경향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전 거의 진화” : 우크라이나 총리 ◦ 소, EC에 곡물판매 요청, 곡창 우크라이나 오염 심각 ◦ 소에 보상 청구 검토키로 : 서독 ◦ 사진 8.5 × 6cm 소련 우크라이나 공화국 알렉산더 이라슈코 총리의 서방기자와의 회견장면
동아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원전방사능 지하확산 우려 〈시카고 현물시장 폭등, EC, 동구의 농산물 전면금수, 소 EC에 곡물공급 요청〉 ◦ 키예프 대탈출 〈체르노빌서 150 km 진상 늦게 안 2백 50만 아비규환〉 철도, 공항 인산인해 --- 소 언론 2주만에 사실보도 ◦ 서독, 소에 보상청구 검토
중앙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권 농산물 전면금수 〈원전사고 파장, EC, 서독은 소에 보상청구 검토〉 ◦ 소 유럽 공동체제에 곡물공급 요청 설 ◦ 사고원전 근로자들 임금인상 특혜부여 ◆ 서방기자 원전근처 키예프시 첫 취재 ◦ 사진 리아슈코 우크라이나수상 기자회견
1986. 5. 10 [12일째]	
서울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사고원전 완전진화 〈키예프시도 점차 정상회복, IAEA 로센 국장 현장답사 회견서 밝혀〉 ◆ 시카고 시장 현물값 폭등 〈소 원전방사능 지하침투 우려에, 「차이나 신드롬」 현상막게 사고원전 지하에 납차단 벽 : 소 당국〉
조선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사고원자로 지상-지하 밀봉 〈IAEA조사단, 체르노빌답사 확인, 불길도 완전 진압 “동형 원전폐쇄” 안해〉 ◦ 방사능 지하침투 우려 : 서독 전문가 ◦ 사진 11.5 × 8.5 cm 희생자수는 요지부동 〈우크라이나 공화국 수상 기자회견〉
한국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방기자 사고 원전 첫 르포 〈체르노빌 상공 헬기들 모래 뿌리기 진화한창, 학생 25만 조기방학 --- 주부, 식품 사기전 꼭 생산지 물어〉 ◦ 소 원자감시소 설치 ◆ 키예프시는 탈출인파 대소동 〈소 원전방사능 지하침투 우려 공상영화 「차이나신드롬」과 비교도, 아직 불길 내뿜어 또 다른 폭발위험〉 ◦ 사진 9 × 6.5 cm 〈원전사고 기자회견〉
경향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사고 원자로 진화 〈콘크리트 밀폐작업중, IAEA발표에선 방사능 정보제공 동의〉

1986. 5. 10 [12일째]	
경향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르노빌원전 지하굴착 착수 △고열핵연료 지하침투 지하수 대기 발산현상 - 차이나 신드롬
동아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출 삼가라” 인적드문 키에프시 〈건물 창문 굳게 닫혀 시민들 공식발표전 원전사고 이미 알아〉 탐지기로 행인 방사능측정, 어린이 25만명 조기 여름방학 ◦ 사고 원자로 밀폐작업 △사설 : 체르노빌 파장과 교훈 ◦ 사진 7.5 X 5 cm 아기도 방사능 측정검사
중앙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사고원전 진화 〈콘크리트 밀폐작업〉 (국제 원자력기구 조사 3명 사망, 2백 20명 부상) ◦ 사진 어린아이의 신체에서 방사능측정
1986. 5. 11~12 [13~14일째]	
서울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 안전 국제회담 추진 〈OECD 24개국 핵전문가 파리서 회동, 서독선 IAEA에 긴급 이사회요청〉 프랑스 방사능 평소의 4백배 ◦ 음식통해 체내흡수, 요오드-131 검출 ◦ 파리 로이터 연합
조선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국서 원전사고 예방 부심 체르노빌 이후 「0.1 %의 가능성」 유사시 근본 해결책보다 피해 축소주력 〈각국 원자력 현황〉 --- 이혁재기자 ◦ 소 원전누출 방사능서, 아이오다인 - 131 확인 ◦ 칠새도 방사능오염 핀란드서 정상치 ◦ 로마-판헨, 반핵시위 확산 서구 원전폐쇄 요구 ◦ 사진 폴란드 원전반대 시위
한국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사고원전 밀폐중” 〈완전진화 --- 방사능누출도 감소, 국제 원자력기구 밝혀〉 ◦ 프랑스, 동구권 식품금수, EC앞서 단행 ◦ “방사능 요오드 - 131 검출돼” : 타스통신 시인
경향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각국 반핵시위 재연 (소 원전사고 여파 이탈리아, 서독이어 프랑스, 포르투갈까지) 〈오늘은 체르노빌, 내일은 우리하여 핵전폐쇄, 신설중지〉 ◦ 소 사고원전 더이상 위험없다 : 과학원 부원장 발표문서 주장 ◇화학전 벌어진듯이 살벌 〈방사능 난민촌, 소 코펠포토 국영농장〉 곳곳에 의료천막 - 공상과학 영화를 연상, 집으로 돌아가게 될 날 아무도 알지 못해
동아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반핵감정」폭발 〈서독, 이탈리아, 프랑스서 대규모 시위, “오늘은 체르노빌, 내일은 우리차례”〉

1986. 5. 11~12 [13~14일째]	
동아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원전사고 이틀후에 고르바초프 보고받아, 현장주변 9만명 대피 소, 대기누출 방사능 63년의 백배 고르바초프 계속 침묵
중앙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서 대규모 반핵시위 〈이탈리아, 프랑스 서독등 원전 건설중지, 폐쇄요구〉 소의 원전사고에 영향 받아 영국인 50 %, 서독 69 % 원전건설 반대 소 원전사고 보고늦어 고르바초프 잘 몰라
1986. 5. 13 [15일째]	
서울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각국 반핵감정 폭발(이탈리아, 프랑스, 서독 등지서 대규모 시위) (“오늘은 체르노빌, 내일은 우리 차례”) 〈핵전 폐쇄, 신설중지 요구 : 소 원전사고 여파〉 사설 핵의 재난만을 공유할 것인가 소 관리 3명 처벌 원전사고 문책 사진 11 × 9 cm 반핵시위
조선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핵 대시위 〈서구 원전폐쇄 - 건설중지 요구〉 사진 12.5 × 8.5 cm : 폴란드 원전반대 시위
한국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탈리아, 서독, 프랑스 반핵시위 〈체르노빌사고 영향 --- 원전 폐쇄등 요구〉 원전 국제 감시망 설치 WHO 사진 12.5 × 8.5 cm 반핵 시위에 유모차도 한 몫
경향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전사고 사망자 8명으로 늘어나, 소 국영 TV보도 동구권 농산물 금수 EC외무장관 밝혀
중앙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원전사고 이모조모 피난민들 국영농장으로 몰려, 군 천막안서 방사능 오염검사
1986. 5. 14 [16일째]	
서울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방 15개국 대사초청 소 원전사고 브리핑
조선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원전 사망자는 8명 수백년간 밀봉해야
한국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원전 환자 대거 골수이식 수술 --- 의학계의 새장, 미전문의 초청 백명 시술 방사능오염 우유 마신 서독인 발암경고 해외토피 방사능오염된 돈 제조해준다, 이탈리아 신종 네다바이 90만원 쟁겨 줄행랑
경향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원전 방사능 물질 대기권 방출 거의 중단 소 외국 공관에 설명, 모스크바 = AP, 로이터 연합
동아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사고 조기 경보기구 신설 제의 〈고르바초프 핵실험 중단조치 연장도 제의 : 원전사고후 첫 회견〉 미 소재안에 냉담

1986. 5. 14 [16일째]	
동아일보	◦ 소 원전사고 은폐비난 <IPI규탄 결의안>
1986. 5. 15 [17일째]	
서울신문	◦ 원전 안정 상호감시 국제기구 설치하자 : 소 고르바초프 서기장 제의 ◦ 미 15개시 낙진검출
조선일보	◦ 핵전 발생 땀 40억 사망 환경변화 식량부족으로
경향신문	◈ 핵 사고 조기 경보체제 구축하자 <고르바초프, 국제회의 소집제의, 핵실험 중단조치 연장, 체르노빌로 9명 죽고 2백 99명 부상> ◦ 미 관리들 소제안 냉담
동아일보	◦ 핵 사고 조기경보기구 신설제의, 고르바초프 핵실험 중단조치 연장도 선언 ◦ 미 소제안에 냉담 ◦ 소 원전사고 은폐 비난 IPI규탄 결의안
한국일보	◦ 핵사고 경보 체제 만들자 고르바초프 핵실험 중단 정상회담제의 ◦ 미 소제안에 냉담

II. 외신에 비친 원전사고 미확인 보도의 실상

1. 사망자 「2천명」 보도에 얽힌 일화들

소련의 우크라이나 원자로사고에 대한 정보가 막혀버리자 서방의 통신기관들은 여기저기 확인도 되지않는 소스에서 정보를 수집하느라 안간힘을 썼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테면 그해 1986년 5월 1일 UPI 통신은 성명미상의 키에프주민의 말을 인용,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천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었다. 실바나 포아 UPI 외신부장은 통신사가 이 정보를 보도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네델란드의 한 아마추어 무선사도 그해 4월 31일 어떤 일본사람과 키에프에 산다는 러시아 역센트가 강한 영어 사용자와의 무선통화로 우크라이나의 엄청난 사고를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는데, 여러 통신사가 인용한 문제의 네델란드인 아니스 코프만씨의 말에 의하면 심한 러시아어양의 통화자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용해원 자로도 하나 아닌 둘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엄청난 원자로 사고와 정보부족에 허덕이는 세계를 위해 공식발표는 믿을 수 없거나 그나마도 없을 때 통신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가급적 보다 많은 소스를 통해 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뉴스매체들의 긴급체크에 대해 유익한 의견 또는 공식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알려주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지역 정보·외교·과학관계 기관관리들의 평소의 자세인데 이사고의 경우 그들도 정보를 대기하고 있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кей블 뉴스 네트워크의 업무담당 회장 에드 터너씨의 다음과 같은 실토는 흥미롭다.

뉴스 매체들 역시 여행자나 아마추어 무선사, 키에프 거주자와 기타지역 주민들로부터 정보를 찾고 있었다. 약간의 뉴스를 놓게되면 편집자는 이것을 알려진 사실과 미확인 소문들을 종합하여 서술한다. '여기서 몇줄, 저기서 몇줄을 모으면 아주 훌륭한 정보의 성격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라고.

그러나 뉴스매체들은 미확인 정보를 기사화하는 문제, 그리고 미확인 데이터를 얼마만큼 볼 보이게 부각시키느냐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였는

데 그 중에서도 문제의 초점은 우크라이나 원자로 사고에서 '2천명이 죽었다'는 UPI의 미확인 보도였다. AP는 문제의 정보를 전혀 기사로 내보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부편집인 월터 메어스씨는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 2천명 사망설은 너무 많은것 같다고 전하면서 사상자 숫자가 과장되었다는 소련의 성명을 함께 보도했는데 앞절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 소식통을 되받아 몇일간 보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뉴욕 타임즈는 UPI 사망자 숫자를 우크라이나 사고의 본기사와는 별개의 박스로 따로 처리했다. <신문기사 및 제1부 통계표 참조>

이 난에는 키에프 발신의 다른 미확인 보도들도 들어있었다. 이는 NYT의 워렌 호지 외신부장이 사망수가 단일의 미확인 소식통 인데다 확인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다룰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덧붙여서 그는 UPI 보도가 너무 큰 것이어서 목살 할 수는 없었지만 일반기사와 같은 신뢰성이 있는 양 본기사에 묶을 수는 없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도 미확인 보도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짐 호글랜드 외신담당 부국장은 UPI숫자도 언급하긴 했으나 너무 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었다고 후일담으로 밝히고 있다. 그나마 이와 같은 실상을 접할 수조차 없었던 제3국의 언론은 이러한 감춰진 사실에 가려진 채 그나마도 그런 미확인 소식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지금과 같이 백일하게 드러난 허상이 그 당시의 실상으로 조명되기조차 했던 것이다.

이 여파를 다시 점검해 보면 UPI의 포아 외신 부장은 통신사의 고위 편집간부들이 미확인 숫자를 내보내기에 앞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고 밝히고 소련관리들이 사망자수가 단 2명이라고 밝히는 바람에 그런 민감한 숫자를 내보내는 것이 보통 고충이 아니었으나 결론적으로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으며, 그에 의하면 4월 28일 키에프에 사는 신원미상의 여인과 전화접촉이 이루어져 병원과 기타 소스를 체크하여 사태가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녀는 5월 1일 문제의 <2천명> 정보를 전해왔다는 것이다. 그 후,

키에프 여인과의 재접촉이 시도되었으나 불발로 끝났다는게 포아 부장의 해명이자 해프닝이다.

2. 긴급핵사고시 내비친 동서냉전의 한 단면

1980년대 상반기도 확실히 동서냉전의 극치로 핵무기 확장경쟁과 군비축소 결렬등의 심각한 문제로 세계인이 공포에 시달리던 시기였었다. [부록 2참조] 이러한 시기에 소련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발생 얼마후 뉴욕에 온 소련 외무성 올라디미르 로메이코 공보실장은 사망자가 2명뿐이라는 소련의 공식발표에 대한 서방신문의 이른바 불신을 비판했다. 4월 30일 뉴욕 타임즈 간부들과의 오찬석상에서 로메이코 실장은 상황에 대한 확실성이 입증될 때까지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게 소련의 전통이라고 강조했고, 또한 UN 총회에서 우크라이나의 재난도 우도 벤코 수석대표는 본국 정부가 <서방 신문, 특히 미국신문들이 체르노빌사고에 대한 선정적 보도를 단연 일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서방에 번진 루머들은 수천명이 죽은 것으로 퍼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2명이 죽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저널리스트들은 소련당국이 결국에는 사고의 진상을 공개할 것으로 낙관하면서 1979년 미국에서 일어난 드리마일 아일랜드 원자로사건때 역시 수개월 동안이나 장막에 가려져 있었던 상황과 비교했는데 이 점을 고르바초프의 연설문에서도 잘 지적되고 있다. [부록 1참조] 워싱턴 포스트지 호글랜드 부국장의 다음과 같은 말은 두고두고 여운을 남긴 명언임이 분명하다.

<드리마일 아일랜드 사고의 전모가 7개월만에 알려졌는데 만일 지금으로부터 7년후쯤 소련 원자로 사고의 전모가 밝혀진다면 그때 또한번 놀라게 되겠지요.>

이제 우리는 체르노빌 사고의 10년을 맞고 있으며, 지금 비엔나에서 개최중인 IRPA 10차 총회(1996. 4. 14~19)에서도 전모가 분명히 밝혀진 사실들이 보고되어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전대미문의 이 체르노빌사고의 무성했던 풍문의 전모가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되어 실상으로 밝혀질 것이 틀림없다.

3. 국제 신문인 협회(IPI)의 규탄 결의안 채택
국제신문인협회(IPI)는 그해 (1986년) 5월 14일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은폐하고 이를 신속히 알리지 않은 소련을 강력히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3일간 예정으로 5월 12일 빈에서 개막된 제35회 IPI 총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

안에서 소련의 사고은폐 및 보도지연으로 수백 만명의 지구인들이 정확한 정보에 접하지 못해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소련의 행동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 결의안은 이어 이는 국경을 초월한 자유로운 정보교류를 규정한 헬싱키협정 정신을

표 3. The Selected Lists of the Korean Alphabetical Classification of the Reported Subject Category Indication in the Korean Daily Newspapers* after the Chernobyl Reactor Accident.

분류	약어	명칭	Abbr.	Nomenclature
1	농학[農學]:	농학	<AG>	agriculture
2	방검[放檢]:	이온화방사선 검출	<RD>	radiation detectors <ionizing radiation>
3	방능[放能]:	방사능	<RA>	radioactivity
4	방어[防禦]:	방사선방어	<PA>	radiation protection
5	방요[放療]:	방사선요법	<RT>	radiotherapy
6	법령[法令]:	원자력법령	<LE>	atomic legislation
7	사진[寫眞]:	방사선사진기술 <의학분야>	<RG>	radiography<medical>
8	생효[生效]:	생물학, 생물학적 방사선 영향	<BI>	biology, biological radiation effects
9	선원[線源]:	방사선 <X선관을 중심>	<RS>	radiation sources <esp. X-ray tubes>
10	선측[線測]:	선량측정	<DO>	dosimetry
11	수저[輸貯]:	수송과 저장	<TP>	transportation and storage
12	안전[安全]:	원자력안전조치	<SG>	safeguards
13	양 [量]:	양	<QU>	quantity
14	제염[除染]:	방사능오염제거	<DE>	decontamination
15	외측[外側]:	방사선 이외의 측정	<ME>	measurement other than of radiation
16	이방[이放]:	이온화방사선	<IO>	ionizing radiation
17	조시[照施]:	방사선조사처리 및 시설	<IR>	irradiation processes and facilities
18	차폐[遮廢]:	차폐	<SH>	shielding
19	측단[測單]:	측정단위	<UN>	unit of measurement
20	편조[編組]:	편제·조직	<OR>	organizations
21	핵의[核醫]:	핵의학	<NM>	nuclear medicine
22	환태[環態]:	환경 및 생태학	<EN>	environment, ecology
23	기 타			

*These are the Seoul Shinmun, The Chosun Ilbo, The Hankuk Ilbo, The Kyunghyang Daily News, The Dong-A Ilbo and The Joong-ang Daily News.

위배한 것이며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규탄했다. IPI는 이와 함께 기자들을 인질로 억류하고 있는 레바논 게릴라들과 점차 증대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언론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아울러 채택했다.(빈·로이터 = 연합)

4. 북한의 체르노빌 핵사고모도화 핵사찰권고

북한은 체르노빌 핵사고가 발생한지 3주만에 이에 대한 첫 방송을 하였다. <서울 내외통신>에 의하면 북한은 이 사고후 17일만에 이 참사에 관련해 미국, 서독 등 서방국가들의 「과잉 보도」를 했다고 비난한 그해 5월 14일자 고르바초프의 TV연설내용(부록 [참조]뒤늦게 보도함으로써 사건 발생을 북한주민들에게 알렸다. 또한 고르바초프 당시 공산당 서기장은 이 사고직후 당시 소련의 지원으로 북한에 건설되고 있던 원전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북한지도부에 요구한 것으로 최근에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에 사망한 러시아의 군인이자 사학자인 트미트리 볼코고노프 장군의 유작으로 최근 출간된 「일곱지도자 - 소련지도자」의 회랑(전그림)에서 드러났다.

III. 본질적인 면에서 본 국민이해의 관점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

서정주 <푸르른 날>에서

원자력개발 사상 원자로의 손상정도, 사상자의 수, 방출방사능 등 어느 면에서나 사고당시 미증유의 것으로 알려졌던 구소련의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체르노빌원전 4호기에 대형 폭발사고는 당사국인 구소련에 많은 인명피해와 환경오염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인접국가인 동구와 북구 스웨덴을 위시하여, 심지어는 수천킬로 떨어진 한반도에까지 분명히 이 사고의 영향이라고 믿어진 방사능물질인 요오드-131이 검출되었던 것만 보아도 이 사고의 범위를 실감케 해준 사고였었다. 그 이래로 세계의 원자력발전소 추진계획의 실

상은 한때 단계적인 폐기의 경향을 띤 적도 있었는데, 1995년말 현재 원자력운전중인 31개국이의 루마니아등 7개국이 원전건설 내지는 계획중이다. 이들 국가에서 운전중인 원전은 총 432기 3억 6232만 kW이며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것을 합치면 540기에 4억 4837만 5천 kW에 이른다.

우리의 경우는 지금도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지 않아 발전의 상당부분을 원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현재 국내 총 발전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발전량에 있어서도 53.1%에 이르러 전력공급의 주역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현재 경남고리와 경북 월성, 울진 및 전남 영광 등 네 곳에 11기의 원전을 운전중에 있으며 그 시설용량은 961만 6천 kW로서 전체 발전설비 3318만 kW의 28.98 %를 차지하고 있다. 발전량은 1995년중 670억 2865만 kWh로 국내 전체발전량 1846억 6083만 kWh의 36.3 %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5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중에 있으며 그 시설용량은 410만 kW에 이르고 있다. 1995년중 우리나라 원전의 평균 이용률은 87.3 %로서 세계평균 이용률인 71.6 %보다 15.7 %나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부이긴 하나 원전에 의한 저준위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오염가능성이 논란이 되면서 원자력발전은 바람직한 것인가와 안정성의 문제가 절대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반원전운동이 드높아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원자력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정책결정자의 홍보에 따르면 국내원전은 최악의 경우에도 소련의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는 있을 수 없으며, 설사 노심용융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도 원자로 격납용기가 있어 외부로 방사성물질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며, 미국의 「스리마일섬」원전사고가 이것을 입증해 주지 않았냐고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홍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영광원전 5, 6호기의 건설문제로 각지역 환경운동단체들이 건설저지운동을 벌인 바 있다.

원자력의 개발과 이용을 추진함에 있어 원자력법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안전확보의 도모가 핵심이다. 국민이해의 본질은 이 문제가 신뢰성을

바탕으로 얼마만큼 수용되는가의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 안전확보의 기본은 방사성물질에 관계되는 잠재적 위험성을 현저히 줄여야 함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이 기본적인 고려방법은 원자로시설의 사고방지에 관계되는 안전확보(다중방어), 원자로시설을 평상시에 운전함에 있어서 피폭을 적게하는데 관계되는 안전확보(ALARA), 원자력시설에서의 사고에 관계되는 안전확보의 세 주축으로써 기본 설계가 아닌 기본방침의 심사, 인허가, 건설의 단계, 운영관리, 검사 등을 통해 필요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급일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강대국들은 재처리 등 연료사이클 사업의 본격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은 물론 초우라늄원소 폐기물을 포함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방사성물질의 수송 등 원자력 개발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안전확보'의 기본적인 고려를 보완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한때 관련부처들이 상당 기간 동안 원전관리사업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면에서조차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런 처지에 어찌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환경단체들과 언론의 지적이고 국민의 시각이다.

이제 각계 각층, 이를 테면 산업계, 관민, 대학, 연구소는 물론 핵발전소 인근 주민대표 등을 포함한 실제적인 감시기구의 기능강화는 더욱 촉진되어야 하고,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발생한 원자력시설 관계의 사고내지는 고장 등에 대한 교훈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중에 더욱 완벽한 노력을 해야한다.

지금이야말로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가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길은 일어난 사고의 진상을 솔직하게 밝혀내고 이 비극의 아픔을 철저히 분석하고 반성하여 여기에 관련된 범법자를 철저히 징벌하는 길밖에 없다. 왜냐하면 진실의 치유만이 우리를 미래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한 구바디에프의 말을 깊이 새겨야 할 때이다.

「체르노빌」 핵참사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한가?

10주년에 돌아보는 체르노빌 핵참사!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할 것인가?

V. 결 론

이 지구상에 원자력 발전소가 생긴 이래 『사상 최악의 참사』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4호기의 폭발 (meltdown)사고는 최초(4월 29일)의 외신보도와는 달리 사망자의 수가 매우 적어 (공식 사망집계 (15일) 19명) 다행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수가 일부 증가했던 사실과 방사능 공포의 여파는 또한 인근 국가뿐 아니라 동남아까지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런 위험에 대한 공존성의 잠재의식은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분석된 서울 6개 일간지의 보도에서도 나타났듯이 공산권의 사고에 따른 취재원의 봉쇄 때문에 보도의 한계는 물론 외신에 전적으로 의존한 나머지 많은 착오 (사망자 수, 사고의 범위, 조치사항 등)를 범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제 공산권이 붕괴된 현실에서는 1986년 4월 30일자 중앙일보가 사설에서도 지적했듯이, '강건너불' 인양 국제문제를 좀더 신속하고 심층있게 다루지 못한 점 (일부 신문은 제외)이 좀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1주일 이상 6개 신문이 모두 4명 (외신면)에 연일 톱으로 매우 강도있고 상세하게 취급한 것은 사고의 비중이 그만큼 큰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6개지의 보도에서도 나타났듯이 '방사능엔 국경이 없고 죽음의 재'뿐이라는 사실을 재인식시켜 준 좋은 교훈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당시 6개지의 보도 경향은 내용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17일중 전반엔 동아, 중앙이 가장 강도있고 상세하게 보도했고 후반엔 서울과 조선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6년 현재 10여개 이상의 중앙지와 지자체 이후에 우후죽순 같이 나타난 지방지의 경우를 포함했을 때의 계몽차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들은 원자력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는 모든 집단에 대해 선택에서 비롯되는 어려운 문제도 가능한 한 쉬운 말로

설명해 주는 가장 대중적인 매체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사람들의 이해·관심·태도가 하나로 이해되는 면에서 통일되도록 근접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홍보의 전략이고 특히 원자력과 같이 상반된 의견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이의 함의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는 그것이 그리 간단치는 않으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도 더불어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때문에 본 학회도 대국민 이해 차원에서의 홍보를 위한 학술용어 등의 개발전략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과학보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내용의 난해성 및 용어의 빈약은 물론 용어의 이해부족으로 「접주는 보도」를 종종하고 있음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이해로 받아들여지는 것 보다는 그 혼란스런 양상으로 체르노빌사고의 영향 그 자체보다 더욱 정신적 긴장상태를 조성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본고에서 논의된 신문에 보도된 체르노빌 원전사고만 해도 내외통신 기사 및 이 사고를 종합한 전문서적 등에서 나타난 용어들은 과학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독자라도 곧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다. 때문에 학회차원이나 또는 관심있는 분들이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위한 홍보전략의 일환으로 적어도 <표 3>에 제시된 정도의 분야에 대한 <학술용어>의 개발과 골라 쓰기와 해석 등을 기자의 전문지식 수준에 연관시켜 개발시켜 줄 때라고 생각한다. 이는 기자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기사를 비교적 쉽게 쓸 수 있지만 기자가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채 전문가로부터 들은 내용을 옮겨놓다 보면 기사가 난해해지고 독자인 국민의 이해의 관점에서 난해성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New York Times. Wednesday, April 30, 1986.
2.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1986. 4. 29~1986. 5. 17).
3. 제원복, 핵분열성 생성물인 방사능의 위험성, 한대신문, 제 728호, 2쪽, (1986. 5. 8).
4. Shuichi Igarashi, Radiation Situation in Europe after the Chernobyl Reactor Accident, 日本保健物理, 21, 316 - (1986).
5. Lee Soo Yong, Dread of Nuclear Materials in the First-Half of 1980's, Private Communication with the Hanyang Journal, June 10, 1986.
6. 문석형의, 원전방사능재해대책, DAERI/NSC-215/86(1986.12).
7. 리수용, 핵공포의 실상과 『에너토피아』의 허상, 한대신문, 제 748호, 2쪽, (1987. 4. 23).
8. 리수용역 ICRP-Publication-28,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긴급피폭 및 사고피폭에 대처하기 위한 제원칙과 일반절차, 과학기술처 (1995).
9. George Fox Mott, New Survey of Journalism, p. 266. 1967.
10. 리수용역, ICRP Publication-35, 작업자의 방사선방어를 위한 모니터링의 일반원칙, 과학기술처 (1988).
11. 리수용, 체르노빌 핵참사 3주년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한가?>, 한대신문. 가늌자, 제 797호, 2쪽 (1989. 4. 27).
12. 리수용, 긴급핵사고시 「매스컴」의 보도경향과 방사능재해방지 홍보대책에 관한 소고 <KARP에 관련된 사업보고의 한 예를 중심으로>, 대한방사선방어학회, (11월 21일), 한양대학교 학생회관 콘서트홀에서 개최된 제 11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초록집, PP. 23-26 (1987).
13. Mikail Gorbachev, Television Address, 14 May 1986, Moscow. Text released to the 39th World Health Assembly, Geneva, 16 May 1986, Agenda Item 39.1, WHO Reference A39/INF. DOC/10.
14. Llia A. Likhtarev, Vadim V. Chumack and Victor S. Repin,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emergency countermeasures in the 30 km zone during the early phase of the Chernobyl Accident, Health Physics, V. 67, No. 5, pp. 541-544, 1995.
15.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um-

- mary report on the post-accident review meeting on the Chernobyl accident. Vienna, Austria; IAEA Safety Series No. 75-INSAG-1; 1986.
16. International Commission of Radiological Protection. Protection of the public in the event of major radiation accidents: principles for planning. Oxford: Pergamon Press; ICRP Publication 40; Ann. ICRP 14(2); 1984.
 17. Koch, J. and Tadmor, J., Sheltering-a protective measure following an accidental atmospheric release from a nuclear power plant. Health Phys. 54: 659-667; 1988.
 18. Likhtarev, I., Chumak, V. and Repin, V. Retrospective reconstruction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external gamma doses of population evacuated after the Chernobyl accident. Health Phys. 66: 643-652; 1994.
 19. National Council on Radiation Protection and Measurements. Protection of the thyroid gland in the event of releases of radioiodine.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Council on Radiation Protection and Measurements. Bethesda, MD: NCRP; NCRP Report NO. 55; 1977.
 20. National Council on Radiation Protection and Measurements. The control of exposure of the public to ionizing radiation in the event of accident or attack. Bethesda, MD: NCRP; 1982.
 21. A.A. Borovoi and A.R. Sich, The Chernobyl Accident Revisited, Part II : The state of the nuclear fuel located within the Chernobyl Sarcophagus, Nuclear Safety, V. 36, No. 1, pp. 1-32 January-June (1995).